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중국의 창업생태계 연구를 통한
한국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제시

20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순

목차

국외훈련 개요	4
훈련기관 개요	5
I. 서론	6
1. 연구배경	6
2. 기존문헌 분석	9
(1) 4차 산업혁명의 이론적 배경	9
(2) 창업생태계에 대한 문헌 분석	10
■ 201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	11
■ 2019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사보고서	12
(3) 한중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14
II. 한국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문제점	16
1. 창업 동향	16
2. 한국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문제점	18
(1) 협소한 내수시장	18
(2) 기업가정신 저조 및 4차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 양성 미흡	19
(3) 자본시장 부진	22
(4) 신산업 규제	25
(5) 정부의 4차산업혁명 컨트롤 기능 약화	27
III. 중국의 창업생태계 연구	
1. 중국의 중소기업 현황	28
(1) 중국의 중소기업 현황	28
(2) 중국의 창업열풍 변천사	28
(3) 최근 창업 동향	29
(4) 창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34
2. 중국의 창업시장	36

(1) 중국의 내수시장	36
(2) 중국의 소비자	37
(3) 중국의 유니콘 기업	38
3. 중국의 창업문화	43
4. 중국의 창업자금	50
(1) 중소기업 간접금융	50
(2) 중소기업 직접금융	50
■ 주식시장	50
■ 창업투자	52
■ 벤처투자	56
5. 중국의 창업인재	58
(1) 창업인재정책	58
(2) 귀국유학생 창업원	59
(3) 창업교육훈련	60
■ 대학생 창업교육훈련	60
■ 분야별 창업교육훈련	61
■ 창업인큐베이터 종사자 교육	62
6. 중국의 창업 정책과 지원	63
(1) 중소기업 법령	63
(2) 중앙정부의 창업정책	65
■ 창업정책 일반	65
■ 2017년 중앙정부의 상창 정책	66
■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76
(3) 지방정부의 창업정책	77
■ 2017년 창업정책	77
■ 지방정부의 창업정책 사례	79
7. 기타	79
(1) 규제완화	79
(2) 빅데이터를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	79
(3) 자유무역시범구 조성발전 및 외국인 투자유치	80

(4) 지적권 보호 및 활용, 관리 강화	79
(5)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83
■ 중창공간	83
■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85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86
(6) 다양한 창업행사 개최	87
(7) 귀향 농민공예 대한 창업지원	88
IV.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	89
1.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강화	89
2. 우수한 외국인재의 기술창업 활성화	90
3.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92
4. 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 강화	93
5. 신산업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96
6. 제도전 문화 조성 및 재창업 지원 강화	97
참고문헌	99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중국
2. 훈련기관 : 청도과학기술대학교(靑島科技大)
3. 훈련분야 : 중소기업
4. 훈련기간 : 2018.9.4.~2020.9.3.

훈련기관 개요

1. 주소 :中國 山東省 青島市 老山區 松嶺路99号
2. 전화/팩스 : 86-532-8895-6298 / 86-532-8895-6566/E-mail :
qustieco@hotmail.com
3. 기관 소개
 - 청도과학기술대학은 '50 설립된 산동성 중점건설 대학이며, 문리, 공학, 문학, 경제, 관리, 의학, 법학, 예술, 교육 등 9대 학과 개설한 종합대학 발전
 - 독일, 한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등 16개국 69개 대학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석·박사 과정에서 국제 협력교육을 진행
 - 7개 박사과정, 49개 석사과정을 운영 중이며 박사·석사 과정 재학생은 2,500여명임
 - 총 학생수는 20,000여명에 이르며, 그 중 대학원생은 4,500여명, 유학생은 600여명임

I. 서론

1. 연구배경

중소기업은 혁신과 고용의 원천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세계무역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93-95%, 전체 고용의 약 70%, GDP 기여도의 35-50%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2016년 UN은 매년 6월 27일을 중소기업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대기업 수출 중심 국가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은 그 규모는 작지만,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창업을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어젠다를 설정하고 차관급에 머물러 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켜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 전담 부처 신설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경우로, 1950년 상공부 산하에 중소기업과를 신설한 이래 중소기업 정책의 획을 긋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개시된 이후,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한창이다.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통한 인류 삶의 질 향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각국은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학, 생물학 분야의 기술이 상호 교류와 융합하면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는 바,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스위스계 UBS 은행은 2016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39개국 중 25위를 차지하여, 우리 정부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 외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 5대 경제단체 중에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실시한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실태조사 결과보고(2017.10월)를 보면, 조사 대상 400개 업체 중 323개(80.8%) 업체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준비한 것이 없다고 응답하여,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5 국가 순위 >

순위	국 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 시스템	SOC 수준	법적 보호	전체 (순위)
1	스위스	1	4	1	4.0	6.75	3.4
5	미국	4	6	4	14.0	23.00	10.2
12	일본	21	21	5	12.0	18.00	15.4
13	독일	28	17	6	9.5	18.75	15.9
25	한국	83	23	19	20.0	62.25	41.5
28	중국	37	68	31	56.5	64.25	55.6

자료 :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country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 2016.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수립·실시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연구조사 및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업 천국으로 불리우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수립·보완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자연스럽게 신기술·산업이 창출되기 때문에 창업과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그간 고속성장을 구가해오다가 글로벌 경제침체와 함께 신상태라는 중고속 성장단계로 경제성장율을 재조정하였으며,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리커창 총리가 만인 혁신대중창업(이하 상창)이라는 구호를 제정하여 다양한 창업정책을 강구·실시하고 선전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창업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중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이유는 한중간 밀접한 무역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내기업들의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 수출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중국과 밀접한 무역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수출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상대국이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 수출입 국가에서도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1월 글로벌 시장규모 성장전망, 국내기업들의 민간투자 계획 분석, 업종별 4대 트렌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차·스마트카, IoT,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의약, 첨단 신소재 등 12대 신산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에 수출통계분석이 가능한 항공·우주, 첨단의료기기, 지능형 로봇, 리튬 2차전지,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7개 품목에 대한 수출입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주요 품목 수출입 상위국 동향>¹⁾ (단위, 천만불, %)

		2015년			2016년			2017년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수출	1	중국	3,277	55.7	중국	2,596	50.1	중국	2,291	35.6
	2	홍콩	463	7.9	베트남	512	9.9	베트남	1,338	20.8
	3	싱가폴	361	6.1	홍콩	419	8.1	홍콩	463	7.2
수입	1	대만	1,003	29.6	대만	970	30.5	대만	947	28.5
	2	미국	659	19.5	미국	682	21.5	미국	598	18.0
	3	중국	655	19.3	중국	499	15.7	중국	591	17.8

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6.7.,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주요 품목 수출입 동향』, 26쪽

2. 기존 문헌 분석

(1) 4차 산업혁명의 이론적 배경

세계경제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2016)은 4차 산업혁명을 ‘다양한 기술간 융합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범위·복잡성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 결과 인간의 삶·일·연결 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5월 발간한 ‘차세대 생산혁명 :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을 첨단 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과 같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방식의 변화로 정의²⁾하면서, 1780년대 증기에 의한 기계생산 설비의 도래로 대표되는 제1차 산업혁명, 1870년대 전기에 의한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제2차 산업혁명, 1969년 전자기기, IT를 통한 자동생산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과 대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2017)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정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 예측과 관련하여서는 명암이 교차한다. 세계경제포럼의 ‘2018년 미래고용보고서’(The future of jobs report)에서 앞으로 2022년까지 기계 등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여 약 7,500만개의 일자리가 소멸되는 반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등에서 약 1억 3,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였다.

기업관점에서는 스마트 공장 확산으로 2018~2022년간 연간 글로벌 부가가치가 5,000억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³⁾.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2) OECD,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 Implications for governments and all business』, 2017.5.10

증대효과는 3.7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보고서에서 거시경제측면에서 200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3.0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6~2025년 사이에는 연평균 2.71%로 둔화할 것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융합을 더욱 가속시킬 경우 2025년까지 연평균 2.85%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⁴⁾.

(2) 창업생태계에 대한 문헌 분석

OECD는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에 리더쉽, 인프라, 비정부기관, 초기수용자, 정부, 지원전문가, 네트워크, 금융자본, 교육기관, 인력, 사회적 규범과 성공사례를 포함시켰다. 한편, 기업가정신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아이젠버그 교수는 정책, 금융, 문화, 시장, 인적자원, 기타 지원 등이 창업생태계를 구성한다고 정의하였다.

<표 1> 창업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

영역	세부영역	내용
정책(Policy)	정부	·재정 지원 (예. R&D지원, 스타트업펀드) ·창업 친화적 규제 (예. 파산, 계약, 특허권)
금융(Finance)	금융자본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공공자본시장
문화(Culture)	성공스토리	·창업 성공스토리 전파, 기업가의 사회적 위상
	사회적 규범	·위험, 실수, 실패에 대한 관용, 혁신, 창의성, 실험
지원(Supports)	민간기관	·기업가정신 촉진, 비즈니스 플랜 경연, 컨퍼런스
	지원 전문가	·법률, 회계, 투자자, 기술 전문가, 어드바이저
	인프라	·클러스터, 교통, 인큐베이션센터
인적자원(Human Capital)	노동력	·숙련/비숙련 근로자, 연쇄 창업자
	교육기관	·창업자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교육, 학위과정
시장(Markets)	초기 고객	·얼리어답터, 제품화에 대한 전문지식, 초기 리뷰, 유통채널
	네트워크	·기업가 네트워크, 다국적 협력

출처 : 아이젠버그, 2010년

3) Capgemini, Smart Factories : How can manufacturers realize the potential of digital industrial revolution 2017, Capgmini digital transformation institute, Feb-Mar, 2017

4) 산업연구원,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19.2.24

■ 201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4차 산업혁명에 흐름의 맞춰 관련 지표들이 새로 도입된 201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혁신생태계를 비교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 전체 140개국 중 15위와 28위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 역동성과 혁신역량 지표를 비교하면 총 18개의 하부지표에서 창업비용 등 9개의 하위지표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구개발 비용지출 등 9개의 하위지표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는 하위지표로는 창업비용, 창업위험에 대한 태도, 권한위임 의향, 창의적 아이디어 수용하는 기업, 인력의 다양성, 클러스터 발전 정도, 이해관계자간 협조, 과학 논문, 연구기관의 수준이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의 연구기관 수준이 세계 2위를 차지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이 뛰어난 반면, 한국의 연구개발 지출이 세계 2위를 차지하여 연구의 양적 수준이 높았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혁신생태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기업가정신이 발달한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이스라엘과 한중일 등 6개국의 기업가정신 비교에서 한국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기업가정신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동 조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의 기업대표들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자국의 기업가적 위험 수용정도에 대해 묻는 항목을 시계열 조사한 것이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기술집약적 기업의 신장으로 2017년 기준 전세계 유니콘 기업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4년의 12%보다 21% 증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2018년 혁신생태계 한중 비교>

	2018년	
	한국	중국
Pillar 11 기업역동성	22	43
창업비용	93	13
창업소요시간	12	106
파산회복율	12	69
파산규제제도	8	38
창업위험태도	77	28
권한위임 의향	88	50
혁신기업 성장	37	39
창의적 아이디어 수용	35	24
Pillar 12 혁신역량	8	24
인력다양성	82	77
클러스터발전	30	29
국제발명	15	45
이해관계자협조	31	29
과학 출판	18	14
특허 신청	3	32
연구개발 지출	2	18
연구기관 수준	11	2
바이어 세련도	2	19
상표 신청	23	45
종합 순위	15	28

출처 : 세계경제포럼, 2018-19 세계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2019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사보고서(Global Startup Ecosystem)

전세계 최고의 창업 생태계를 보유한 미국의 스타트업분석기관 스타트업 게놈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는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2019년판을 보면,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가 2017년 처음으로 전세계 10위권안에 진입한 후, 2019년에도 각각 4위와 8위로 진입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창업허브인 서울시는 순위권에 진입하지 못하였고, 향후 5년 이내 30위권안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부산시시의 경우 여성창업자가 전체 창업자의 18%를 차지해 여성창업자 생태계 측면에서 전세계 10위를 기록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글로벌 10대 창업 도시생태계 비교>

	도시	성과	펀딩	시장접근	연결성	인재	창업경험	지식
1	실리콘	1	1	1	1	1	1	1
2	뉴욕	1	1	3	2	2	1	2
3	런던	1	1	1	1	2	2	1
4	베이징	1	1	5	5	1	1	1
5	보스턴	1	2	2	3	1	1	2
6	텔아비브	2	2	2	1	2	2	1
7	로스앤	1	1	3	4	3	2	3
8	상하이	2	2	2	4	1	3	1
9	파리	2	1	3	2	3	3	2
10	베를린	3	2	1	1	2	3	4

출처 : 스타트업 계몽,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보고서 2019

베이징시의 창업생태계를 보면, 베이징은 중국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1,070개의 인공지능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중 Bytedance라는 유니콘 기업은 전세계 민간투자 중 가장 많은 750억불의 기업가치에 기반하여 2018년 30억불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중관촌에는 10개의 인공지능 실험실과 9천개의 기술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Mentougou에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21억불 규모로 구축하고 있다. 시정부에서는 기술 프로젝트에 22억불의 민간캐피탈을 도입할 계획이며, 민간대출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1,490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하이는 1,000개이상의 교육기술 기업이 소재하였으며 15년과 17년에

13억불의 벤처투자를 유치하였다. 직업교육 창업기업인 Retech Technology사는 17년에 기업공개로 1,800만불을 조성하였으며, 17zuoye사는 18년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2.5억불의 투자를 유치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하였다. 상하이에는 또한 20년 150억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산업의 고장으로 130개 이상의 게임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대 게임박람회인 ChinaJoy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의 창업생태계를 보면, 전세계 7위 규모를 자랑하는 광고산업의 본고장으로 제일월드와이드와 같은 주요 광고기업이 포진해있으며, 19.1월 Madup사는 1,200만불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며, Dable사는 18.4월에 560만불을 조성하였다. 또한 전세계 4위 규모를 자랑하는 게임산업의 고향으로 Bluehole이라는 판타지 게임 개발사는 18년 중국의 텐센트사로부터 5억불의 투자를 유치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하였다. 17년 한국의 최대 모바일 게임사는 국내 규모로는 두 번째로 가장 큰 23억불의 기업상장에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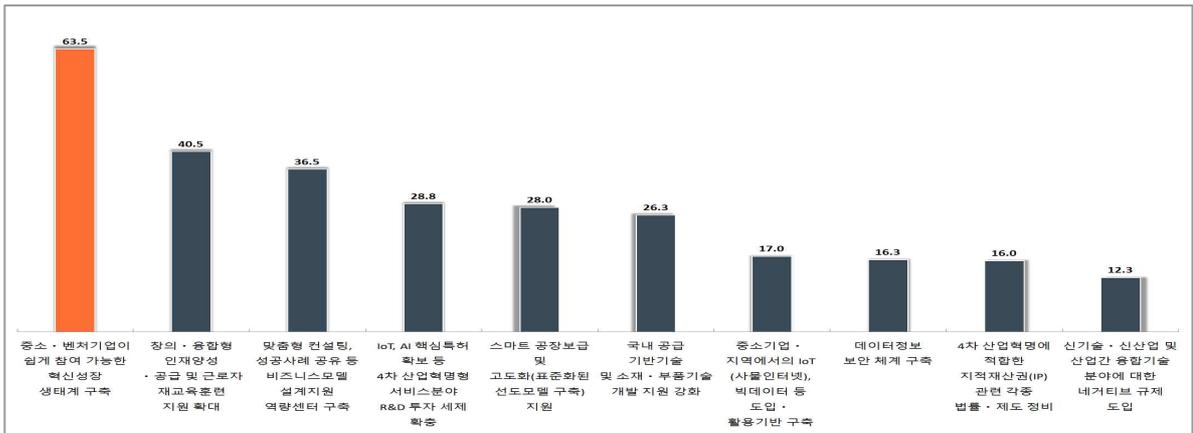
(3) 한중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를 중복선택으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이 쉽게 참여 가능한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이 63.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공급 및 근로자 재교육훈련 지원 확대’ (40.5%), ‘맞춤형 컨설팅, 성공사례 공유 등 비즈니스모델 설계지원 역량센터 구축’ (36.5%), ‘IoT, AI 핵심특허 확보 등 4차 산업혁명형 서비스분야 R&D 투자 세제 확충’ (28.8%), ‘스마트 공장보급 및 고도화(표준화된 선도모델 구축) 지원’ (28.0%), ‘국내 공급 기반기술 및 소재·부품기술 개발 지원 강화’ (26.3%) 순이다.⁵⁾

최근 코트라가 실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해외 경쟁력 설문조사 분석(2018.3.13.)을 보면, 전세계 59개국 기업에 비해 중국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실태조사」, 2017.10.27., 15쪽

<표 3>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복수응답)
(단위 : 개, %)



주) 복수응답이 가능한 항목으로 전체 비율의 합이 100% 초과할 수 있음

<4차 산업혁명 인식도 및 준비 현황>6) (단위 : %)

	설문전체 평균	중국
4차산업혁명 인지	77	87
생산변화에 충분히 대응	29	58
유통변화에 충분히 대응	39	77
소비변화에 충분히 대응	36	73

6) 코트라, 2018.3.13.,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해외 경쟁력 설문조사 분석』, 7쪽

II.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창업동향

우리나라 신설법인은 정부의 창업정책에 힘입어 지속 증가해오고 있다. 2019년 신설법인은 전년 대비 6.7%(6,832개) 증가한 10만 8,874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해 업종, 나이에 따라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 고령화 시대에 맞는 경력기반 창업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가정간편식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음식료품 제조업 증가가 전체 제조업 증가를 이끌었다.

< 연도별 신설법인 추이('08~'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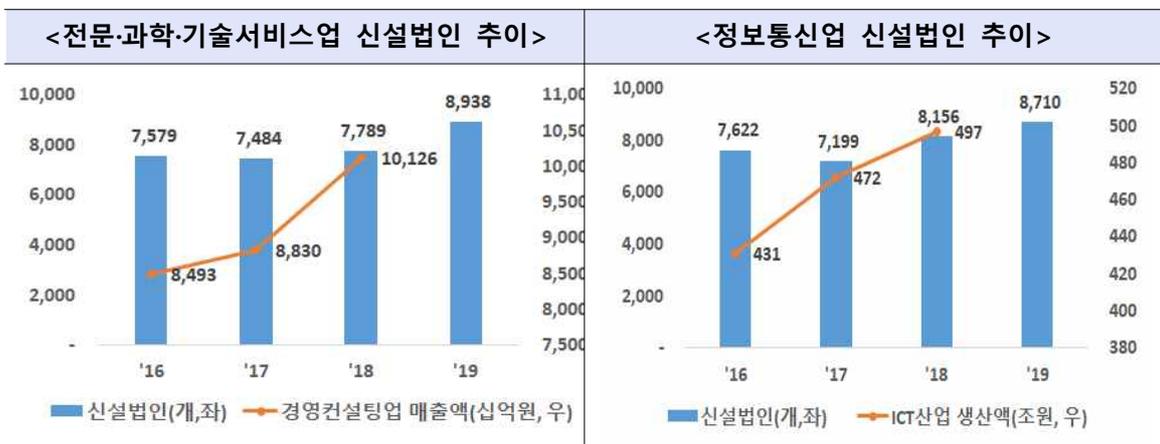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0.2.11.일 보도자료 “지난해 신설법인 10만 9천개로 사상 최고치 달성”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3,125개, 21.2%), 제조업(19,547개, 18.0%), 부동산업(14,473개, 13.3%), 건설업(10,619개, 9.8%) 순으로 신설됐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19,547개로 전년 대비 3.1%(593개) 증가했으며, 고무·화학(381개 ↓, 11.8% ↓)이 감소했지만, 음식료품(476개 ↑, 17.1% ↑), 기계·금속(151개 ↑, 3.7% ↑) 등의 호조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신설법인은 '18년 대비 11.8%(7,778개) 늘어난 73,884개로 나타났다. 부동산업(4,328개 ↑, 42.7% ↑)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18.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9년 들어 법인설립이 크게 증가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149개 ↑, 14.8% ↑)은 컨설팅 시장의 확대에 따라 컨설팅업을 중심으로 신규 법인설립이 늘었고, 정보통신업(554개 ↑, 6.8% ↑)은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0.2.11.일 보도자료 “지난해 신설법인 10만 9천개로 사상 최고치 달성”

전통 서비스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도 전체 신설법인 증가에 기여했다. 도·소매업(153개 ↑, 0.7% ↑)은 소폭이지만 '18년의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숙박·음식점업(325개 ↑, 18.2% ↑)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18년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설업도 전년 대비 5.5%(550개) 증가해 기존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6)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와 4분기 건설수주액이 증가로 전환되며 하반기 들어 증가했다.

2. 한국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협소한 내수시장

내수 1억론에 따르면 한 나라 경제는 인구 1억명이 되어야 내수만으로도 자립가능한 경제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억명의 절반도 안되는 인구 5천만명을 보유하고 있고, 그나마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져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경제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멈추지 못하면 2030년이면 경제성장율이 0%에 정체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전세계 7번째 나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국가가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 수출에 의존해 반도체, 조선, 전자 등 주력산업에서 전세계 선도국가로 명성을 누려왔고 대기업 성과에 따라 많은 국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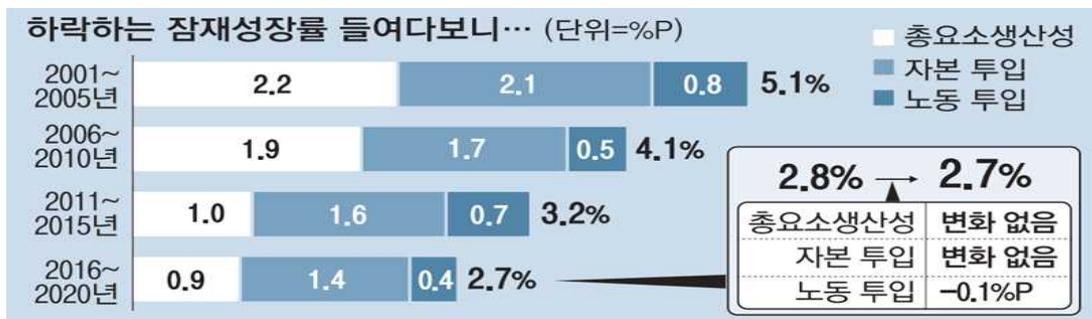
하지만, 최근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소상공인 등 경제 하부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새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는 단기적으로 고용 악화 등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정책은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잠재경제 성장율을 낮추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경제 성장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창업기업이 성공하기란 척박하기 때문에 처음 창업부터 가까이서는 옆나라 중국 시장을 겨냥하거나 크게는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글로벌 창업을 할 필요가 있다. 주로 본 글로벌

창업의 중요성을 말할 때 네이버의 라인과 카카오톡을 대비하곤 한다. 카카오톡은 국내 메신저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네이버의 라인이 더 유명하다. 또한 1999년 창업하여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가입자로 있었던 싸이월드는 과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위 사례가 말해주듯이 국내의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세계를 무대로 창업하는 본 글로벌 창업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



출처 : 한국은행

(2) 기업가정신 저조 및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 양성 미흡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2019.1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이 저조한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 선호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즉, 그간 우리나라 경제개발 과정 중에서 형성된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따라 청년들의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창업교육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저조는 실제로 청년창업 미흡으로 이어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절실한 작금에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활력 저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실제로 한중 대학생 창업생태계 비교(국제무역연구원, 2019)에 따르면, 중국 대졸생 중 창업율은 전체의 8%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 대졸생 창업율은 0.8%로 1/10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청년창업이 저조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생계형 창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2019)에 따르면, 20대 창업 기업 중 정책 지원에 의해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등 혁신형 창업으로 인증받은 비중이 0.3%이며, 20대 창업이 많은 5대 업종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39.2%, 숙박 음식 점업 24.2%, 제조업 8.3%, 교육서비스 6.7%, 운수업 4.1%로 나타났다⁷⁾. 중국의 경우 최근 기회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제고 및 대학의 창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비즈쿨 운영, 창업선도대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와 우리나라 산업계에 대표적인 창업성공사례가 창출되지 않은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업가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 활성화 저해 요소>



출처 : 2018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7) 현대경제연구원, 20대 청년창업의 과제와 시사점, 2017.4월

또한 2018년 대학창업교육 활성화 추진계획(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 창업 강좌 중 실습형 강좌 비율은 20.7%로, 대학의 창업교육이 현장과 괴리된 이론교육에 치중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인재를 양성 공급하는 통로로 작용해야 한다.

2016년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창업교육 실태조사에서도 창업강의 수강 경험자중 31%가 가장 필요한 창업교육은 모의 창업 등 실제창업을 해볼 수 있는 강좌라고 응답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학의 창업교육을 창업친화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새로운 기술이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술혁명의 시대로, 어느 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기술분야별로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에 있던 핵심 인재도 다른 나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 스위스 국제경쟁력센터가 발표하는 2018년 월드탈런트 랭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두뇌유출지수에서 조사대상 60개국에서 43위를 차지하여 40위를 차지한 중국보다도 뒤쳐져있다.

4대 핵심부문 인재수준별 부족 현황(△: 부족)

구 분	초급인재	중급인재	고급인재	합 계
인공지능	△671	△2,048	△7,268	△9,986
클라우드	595	648	△1,578	△335
빅데이터	62	390	△3,237	△2,785
증강/가상현실	△2,977	△8,654	△7,097	△18,727
합 계	△2,991	△9,664	△19,180	△31,833

* SW정책연구(18.4월), (초급)전문대·기능대·산업대, (중급)4년제 대학, (고급)대학원(석·박사)

대학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를 양성하려면 교과과정 개편, 기자재

구입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그간 재정이 열악해져, 투자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2019.9.22 일 매일경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 사립대학 총장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 동결을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한 이들이 64%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재정 부족은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그리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다.

실제로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이 2019.9.11.일 발표한 '2020 세계 대학 순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대학인 서울대와 성균관대학교의 순위가 그 직전년도와 비교하여 각각 1단위, 7단위 하락하여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과 재정여건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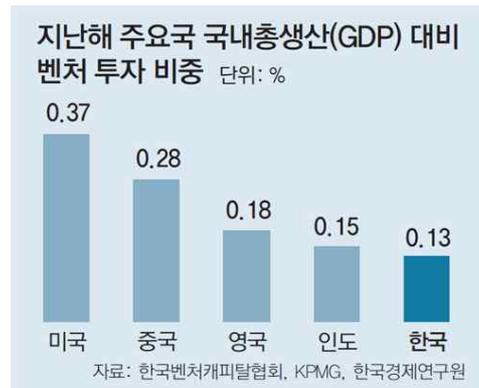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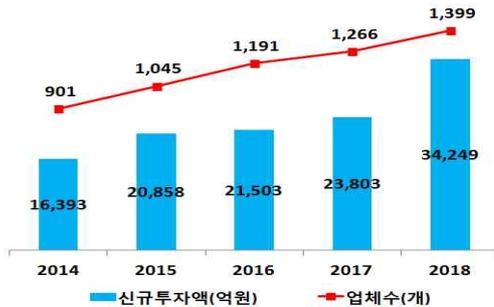
(3) 자본시장 부진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은행대출의 간접시장과 벤처투자, 크라우드펀딩 등의 직접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원으로 자기자금을 이용한다는 92.5%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대출(32%), 개인간 차용(19.7%), 정부 융자 및 보증(4%), 정부출연금, 보조금(2.5%)순으로, 가장 활용이 저조한 부분이 엔젤 및 벤처투자(0.8%)이다.

201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벤처투자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GDP에서 벤처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13으로, 미국의 0.37, 중국의 0.24와 비교할 때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벤처투자는 특히 창업초기 기업 투자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는 서울의 초기 기술기반 평균 창업투자금은 10.7만불로 글로벌 평균 투자액인 28.4만불의 1/3 수

준이며, 중국 베이징의 1/5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전체와 베이징시의 투자총액은 각각 8.3억불과 59억불로, 서울시의 0.8억불과 비교하여 10배이상의 큰 격차가 존재한다.



연도별 벤처투자규모(중기부)

<한국의 창업초기 투자금액 국제 비교>



※ 자료: Startup Genom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9
 ※ 초기 투자금액은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16년 초~18년 상반기까지(2.5년) 확보한 Seed 펀딩 및 Series A 펀딩 합산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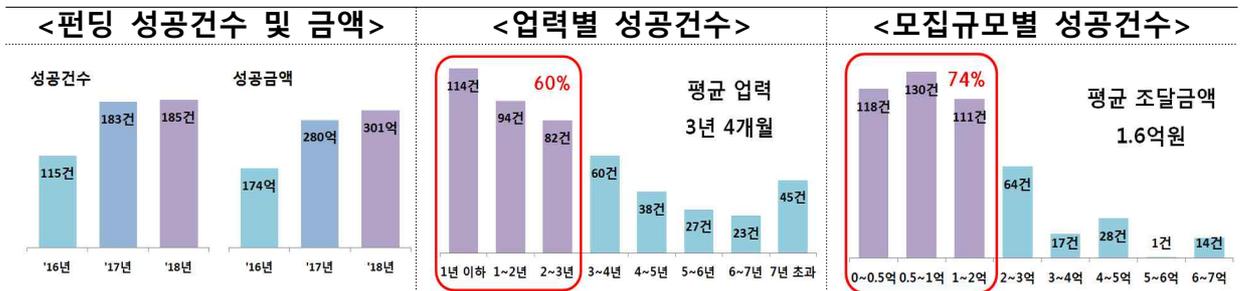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벤처투자가 저조한 주된 이유로 대기업의 참여 부진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성공한 사례가 카카오의 김기사 인수⁸⁾가 회자될 정도로 적은 편이다. 대기업의 벤처투자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 금산분리법을 들고 있다. 금산분리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된 대기업 그룹은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업계에서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 필요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⁹⁾.

8) 카카오는 2015년 '국민 내비게이션' 김기사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하여, 국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9)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CVC 정책토론회 개최(2019.9.4.) 등

벤처투자와 함께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¹⁰⁾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도구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2019.4.12.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동안 417개의 창업 벤처기업이 755억원의 크라우드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활용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 4개월로 주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원으로 활용되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 뿐 아니라 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등을 평가해볼 수 있어 좋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한다면 중소 벤처기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증대시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4.12일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특허 강국¹¹⁾임을 살려, 지식재산 금융¹²⁾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금융은 2013년, 중소기업의 무형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도입되어 2013년 738억원에서 2017년 3,67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자금조달 실적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이라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및 대출이후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민간 시중은행에서의 활용이 저조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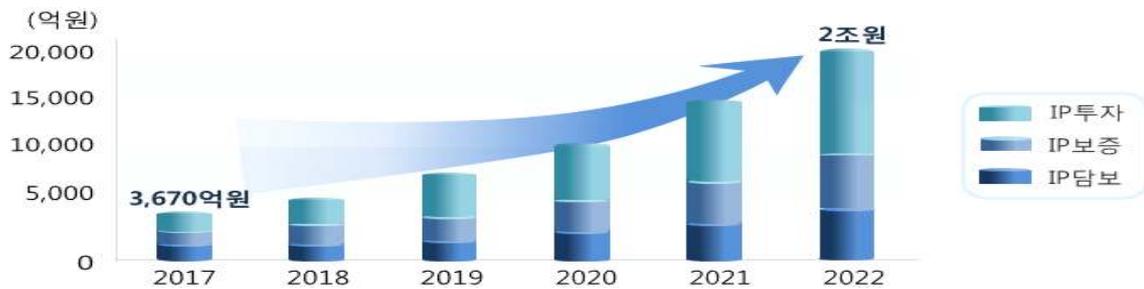
10)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자가 온라인 상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Crowd)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Funding 방식을 말하며,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후원/기부형은 소액 투자자들이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후원금과 기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보상이 없다. 대출형은 사업자에게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자금을 대부대출방식으로 투자하고 이자수익을 얻는다. 증권형은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고 소액투자자가 이를 매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김영규,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현황 및 전망)

11)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GDP 및 인구대비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세계지식재산지표 2018)

12)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을 말하며, 중소·벤처기업이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체금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의 가치와 등급에 기반하여 보증, 대출, 투자 등을 실행할 수 있다(금융위특허청,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2018.12월)

지식재산 금융은 기술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만큼,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더욱 활성화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지식재산 금융시장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지식재산 금융 시장 확대 전망>



출처 : 금융위특허청,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2018.12월

(4) 신산업 규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차량공유,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기존 기득권과의 갈등, 포지티브 규제 등으로 인해 신기술이 시장에 도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4차 산업혁명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下(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3가지 형태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규제샌드박스를 2019.1월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한, 기존에 명시된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는 이유로 시장 출시를 막지 않고, 일단 먼저 허용하여 시행한 후 문제가 없다면 법령정비 등을 통해 합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2019.7월 기준 81건의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

이더, 5G 등 신기술 과제가 도입되었으며, 정부는 전담자 지정 등을 통해 특례 제품·서비스의 조기 시장출시와 판로 확보 등 사후 지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기술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

App 기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VR
53% (43건)	10% (8건)	6% (5건)	6% (5건)	5% (4건)	4% (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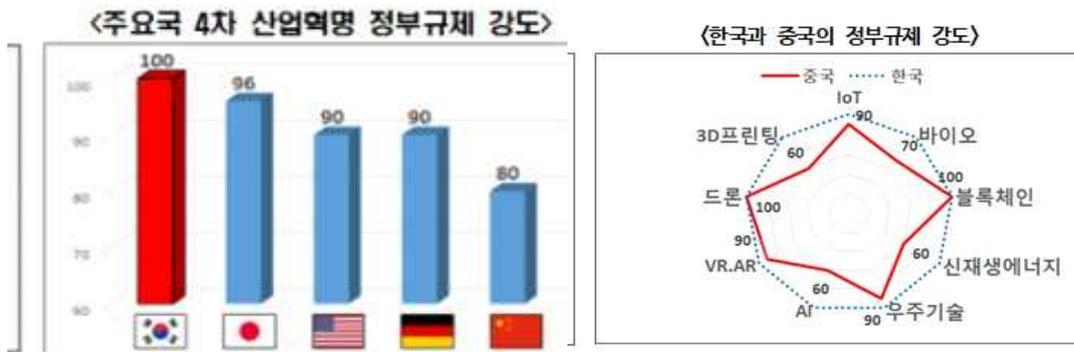
출처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9.7.16.일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는 신청기업에 대해서만 건별 심사를 통해 일정기간만 허가해주는 것으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차량공유 사업의 경우 카카오택시의 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출시되지 못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코나투스의 반택시만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여 서비스중이다.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완화의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므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6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협회¹³⁾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4차산업혁명 규제강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강도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100으로 할 경우, 중국은 80, 미국과 독일은 90, 일본은 96이라고 조사되었다.

본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여전히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서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 클라우드 슈바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9개 분야(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 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와 관련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3D융합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를 말함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4차산업혁명 환경, 한국 최하, 중국 최상, 2019.6월

(5) 정부의 4차산업혁명 컨트롤 기능 약화

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총괄타워 기능을 하는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2017.9월 출범시켰다. 출범 직후 2017.11월, 4차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2018.5월 인공지능 R&D 전략, 2019.4월 5G 전략 등을 발표하였다.

우리정부의 대응은 중국이 2015년 제조 2025계획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2년 정도 늦은데다가,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양적 질적 수준이 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양대 계획인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계획이후 핵심 업종별 발전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맞춰 중국의 3대 대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적극 동참하고 있어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IT 강국으로 전세계의 부러움을 샀으나, 4차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총괄 심의 기능을 넘어서 4차산업혁명 대응의 총괄기관으로 제기능을 다할 필요가 있다.

Ⅲ. 중국의 창업생태계 현황분석

1. 중국의 중소기업 현황

(1) 중국의 중소기업 현황

2017년 기준 중국의 전체 기업수는 3,032.7만개로, 농민전문합작사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체 시장주체인 9,814.8만개의 30.9%를 차지한다. 이중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GDP의 60%,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중국의 창업 열풍 변천사

중국의 기업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중국은 3번의 창업열풍을 겪어왔다. 먼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시작된 제1차 창업열풍은 1979~1989년까지로, 1982년 통과된 중국 헌법에서 자영업자를 사회주의 공유제의 보완역할로 규정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탄생한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 약 22.5만개의 자영업자가 360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89~1991년 3년간의 조정기를 거쳐 1992~1997년 제2차 창업열풍이 불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 국민의 창업을 고취한 시기로 1996년에 민영기업에서 고용한 인원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하였다.

제3차 창업열풍은 1997~2000년으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도 취업난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2001년 WTO 가입과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으로 민영기업 증가율은 매년 20%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중소기업촉진법이 처음으로 제정(2002.6)되어 중소기업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제4차 창업열풍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해 중국도 중고속의 신창타이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청년 실업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중창업 만인혁신 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매일 신설기업수가 1만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시대별 창업열풍〉

		특징
창업1.0	1979~89	개혁개방의 흐름을 따라 개체호라는 영업자들 대거등장
창업2.0	1992~97	국영기업 직원, 공무원이 철밥통을 포기하고 창업
창업3.0	1997~2000	인터넷 창업 열풍에 따라 바이두(2000), 알리바바(1999), 텐센트(1998) 등 창업
창업4.0	2014~현재	중국 경제 둔화라는 신창타이 진입으로 취업난 해소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중창업 만인혁신 시대 돌입

출처 : 한국무역협회, 최근 중국내 창업신드롭과 시사점, 2015.7월에서 재인용

(3) 최근 창업 동향

신설기업은 최저납입자본금 폐지 등 상사제도 개혁의 결과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250.27만개, 2014년 365.1만개, 2015년 443.9만개, 2016년 552.8만개, 2017년 607.4만개를 기록하였다. 2017년 신설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1차 산업에서 20.1만개, 제2차산업에서 107.9만개, 제3차산업에서 479.4만개가 새로 증가하였다. 제2차 산업에서 특히 제조업에서 51.8만개가 증가하여, 동기대비 16.3%가 증가하였다. 제3차 산업에서는 교육, 과학기술연구와 기술서비스업, 문화체육 및 오락산업 등 현대서비스업의 신설기업이 빠르게 증가하여 동기대비 각각 33.4%, 24.3%, 17.8%가 증가하였다.

2017년 신설기업의 지역분포를 보면, 전체의 56.7%를 차지하는 344.3만개가 동부지역에서 신설되었으며, 중부지역은 115.9만개, 서부는 115.2만개, 동북지역은 31.9만개가 신설되었다.

신설기업의 기업규모를 보면, 자영업자가 2017년 1,289.8만개가 증가하여 전체 신설기업의 67%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0.7%가 증가한 것으로 2016년 증가율 5.7%보다 증가폭이 크다. 신설 자영업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2,846.81만명으로 동기대비 17.4% 증가하였다. 등기자본금은 1.4조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32.4% 증가하였다.

누계기준으로 보면, 2017년까지 6,579.4만개의 자영업자가 존재하며 이는 2016년 대비 10.95% 증가한 것으로 전체 기업의 67%를 차지한다. 자영업자의 취업유발 효과는 1.4억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하였다.

2017년까지 누계기준으로 보면, 농촌 자영업자 종사자수의 증가율이 도시 자영업자 종사자수 증가율보다 컸다. 도시 자영업자 종사자수는 9,347.5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자영업자 종사자수의 65.7%를 차지한다. 농촌 자영업자 종사자수는 4,877.8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18%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자영업자 종사자수의 34.3%를 차지하였다.

자영업자 종사자수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누계기준으로 도소매업이 전체 종사자수의 51.85%를 차지하는 7,376.3만명, 음식 숙박업이 15.98%를 차지하는 2,273.9만명, 주민서비스,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이 10.93%를 차지하는 1,554.3만명, 제조업이 10.4%를 차지하는 1,479.42만명을 차지하였다.

누계기준으로 자영업자 종사자수 증가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교육, 부동산, 건설, 교통운수창고우정업, 음식숙박업 종사자수 증가율이 각각 40.87%, 28.18%, 24.59%, 24.34%, 24.01%을 기록하였다.

2017년 신설 자영업자의 업종 분포를 보면, 제1차, 2차, 3차 산업에 각각 46.5만, 75.4만, 1,167.9만명으로 대부분 3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16.7%, 26.1%, 20.5% 증가한 것

으로 1,3차 산업은 전년보다 하락한 반면, 2차산업은 전년보다 상승하였다. 누계기준으로 보면, 제1차, 2차, 3차 산업에 각각 186.7만, 446.5만, 5,946.2만명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19.4%, 10.7%, 10.7% 증가하였다. 2017년 신설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5대 업종은 도소매, 음식숙박, 주민서비스, 수리업, 제조업, 교통운수창고우정업인 반면,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내는 업종은 교육, 전력가스물생산공급업, 채광, 수리환경공공설비관리업, 금융업이다. 2017년 신설 자영업자의 증가율이 가장 빠른 5대 업종은 교통운수창고우정업, 수리가스물생산공급업, 건설, 부동산, 교육업으로 증가율이 각각 98.7%, 79.2%, 60.8%, 57.7%, 45.0%를 차지하였다.

〈2017년 누계 자영업 종사자수 업종별 분포〉

업종	종사자수	증가율
농림어업 목축업	5,529,218	13.68
채광업	151,047	-9.98
제조업	14,794,244	7.56
전력, 가스, 물생산 공급	51,832	-0.8
건설업	806,687	24.59
도소매업	73,763,484	5.64
교통운수, 창고, 우정업	3,302,668	24.34
음식숙박업	22,738,811	24.01
정보전달, 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업	654,259	8.14
금융업	11,909	12.3
부동산업	235,056	28.18
리스, 비즈니스서비스업	2,214,237	19.63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	382,320	4.28
수리, 환경, 공공설비관리	45,333	-39.16
주민서비스, 수리, 기타서비스업	15,543,347	16.23
교육	169,404	40.87
위생, 공공사업	452,662	13.82
문화, 체육, 오락업	1,133,744	15.33
기타	272,483	-22.24

출처 : 중국 국무원, 2017년 대중창업만인혁신발전보고, 86페이지

2017년 신설 자영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가장 많은 자영업자가 분포한 5대 지역은 광동, 산동, 강수, 허남, 허북으로 각각 104.1만명, 99.07만명, 99.05만명, 78.78만명, 78.29만명을 기록하였고, 가장 수가 적은 지역은 청해, 닝샤, 상해, 티베트, 북경으로 각각 6.7만명, 6.58만명, 6.06만명, 3.94만명, 1.7만명을 기록하였다. 자영업자 증가율이 가장 빠른 5대 지역은 귀주, 천진, 사천, 산시, 요령으로 각각 96.0%, 79.6%, 49.4%, 43.7%, 32.1%를 기록하였다. 반면, 가장 증가율이 낮은 5대 지역은 허북, 닝샤, 내몽골, 감수, 북경으로 각각 3.4%, 3.3%, -2.3%, -3.0%, -29.0%를 기록하였다. 즉, 2017년 신설 자영업자 기준으로 동부지역에 40.9%를 차지하는 527만명의 자영업자가 분포하고 있으며, 증가율은 서부지역이 18.63%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기업 퇴출 간소화 개혁의 결과, 기업 퇴출도 용이해졌다. 2017.3월부터 영업허가후 미개업 기업, 퇴출 신청후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퇴출 간소화를 추진한 결과, 2017년말까지 15.4만개의 기업이 퇴출간소화 절차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하였으며, 이는 전체 퇴출기업의 48%를 차지한다.

〈자영업자 지역별 분포〉

지역	누계		신설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동부	24,973,632	28,045,044	4,444,851	5,272,989
중부	13,787,635	15,386,107	2,622,795	2,990,063
서부	15,383,438	16,845,544	2,718,712	3,564,751
동북	5,154,795	5,517,048	903,131	1,070,095

〈신설 자영업자 업종 분포〉

	2017년 누계		2017년 신설	
	자영업자수	금액(만 위안)	자영업자수	금액(만 위안)
농림어업 목축	1,991,147	64,244,622.19	486,540	15,693,788.77
채광	30,347	1,519,747.29	2,626	180,047.63
제조	4,229,163	46,850,179.24	684,349	9,290,305.13
전력, 가스, 물생산공급	20,494	1,033,553.67	4,486	153,233.51
건설	230,284	5,046,950.76	69,720	2,622,809.25
도소매	39,988,816	256,915,178.0	6,549,362	66,827,245.50
교통운수창고우 정	1,914,189	19,918,911.54	606,219	6,891,669.08
음식숙박	8,199,138	75,519,580.54	2,504,714	24,394,754.59
정보전달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355,319	2,101,166.36	71,526	636,713.24
금융	5,494	53,681.31	1,375	16,161.4
부동산	98,125	640,803.73	28,649	246,320.13
리스, 비즈니스서비스	1,081,229	11,005,703.31	282,581	3,717,917.88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184,447	1,082,135.19	23,387	257,772.49
수리, 환경, 공공서비스	15,126	203,092.8	2,301	57,850.35
주민서비스, 수리, 기타서비스	6,757,122	45,360,927.82	1,431,488	12,694,582.5
교육	58,953	686,621.48	22,252	279,266.15
위생, 공공일자리	160,933	1,827,375.86	29,723	510,931.39
문화체육오락	352,450	6,497,169.74	83,902	1,649,252.6
기타	120,967	900,283.79	12,698	174,388.33

출처 : 중국 국무원, 2017년 대중창업만인혁신발전보고, 88페이지

(4) 창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이후 신1대 정보기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생물,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및 신에너지 자동차를 대표로 하는 전략 신흥산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중국의 사회과학원 산하 수량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는 전략신흥산업에 종사하는 1,320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2015-2016년간 7대 핵심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2015년간 163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016년에는 14.3%가 증가한 187만명의 일자리가 전략 신흥산업에서 창출되었다.

일자리 창출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광둥, 북경, 저장, 강수, 산둥성의 5대 지역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의 67.8%를 차지하였다. 이는 동부연해 지역이 전략 신흥산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탁월함을 의미하는데, 허남, 후북, 안휘 등 중부와 사천, 충칭 등 서부지역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좋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에서 2016년 일년간 일자리 증가율을 보면, 마태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광둥, 북경, 저장, 강수, 산둥 등 5대성시의 연평균증가율은 높은 반면, 닝샤, 내몽골, 흑룡강, 길림 등 서부와 동북 지역의 일자리를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2015-2016년 중국 신흥산업 일자리 창출 증가 지역별 분포〉

	지역	2015년	2016년	증가율
1	광둥	299,486	330,674	10.41
2	북경	227,013	337,875	48.84
3	저장	160,053	174,364	8.94
4	강수	140,719	151,848	7.91
5	산둥	106,649	115,717	8.5
6	안휘	89,757	96,121	7.09
7	충칭	78,258	84,184	7.57
8	상해	75,898	82,689	8.95
9	허난	67,385	73,657	9.31
10	사천	55,592	52,012	-6.44
11	허북	39,479	56,957	44.27
12	복건	38,641	44,052	14.0
13	요령	37,991	39,291	3.42
14	강서	35,989	42,831	19.01
15	허북	34,701	33,488	-3.5
16	산서	25,792	26,248	1.77
17	흑룡강	25,486	24,671	-3.2
18	신장	20,259	21,208	4.68
19	감수	16,665	16,545	-0.72
20	샨시	15,163	16,252	7.18
21	후남	13,961	16,224	16.21
22	길림	7,950	7,852	-1.23
23	천진	7,233	9,244	27.8
24	내몽골	6,344	6,006	-5.33
25	귀주	4,457	4,712	5.72
26	광서	3,397	4,407	29.73
27	닝샤	2,420	1,931	-20.21
28	해남	1,097	1,356	23.61
29	윈난	236	585	147.88
	합계	18,730,001	16,380,710	14.3

출처 : 중국 국무원, 2017년 대중창업 만인혁신발전보고, 123페이지

2. 중국의 창업시장

(1) 중국의 내수시장

중국은 인구기준 전세계 1위, 경제규모기준 2위, 토지규모 기준 3위의 경제대국으로, 패권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G2 국가이다. 중국 창업생태계의 빠른 성장에는 중국의 막대한 내수시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3억 9,458만 명으로, 이 추세로 가면 2019년에는 14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세계적 노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두자녀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토지는 광활하여 23개의 성,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2개의 특별 행정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1천만명이 넘는 메가도시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충칭, 청두, 톈진, 심천, 시좌좡, 우한, 하얼빈 등 10여개 이상이다. 또한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8년말 기준 59.6%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40년간 41.7% 증가하여 앞으로도 많은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경제는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알리바바로 대변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였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8년 전자상거래 시장 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4.2%의 성장한 7조5000억 위안(약 1,218조 원)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2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은 세계 최대규모의 인터넷 이용인구(2017년 7.7억명)와 모바일기기 보유인구(7.5억명)에 힘입었으며, 이와 함께 모바일 결제, 물류 유통 등 기초 인프라의 발전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도입으로 소비 효율을 제고한 결과이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 등 혁신을 거듭한 중국 택배 물류는 하루

평균 1억1000만 건의 택배량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모바일 결제 역시 2017년 1년간 결제 규모 98조7000억 위안(약 1경6054조 원)을 기록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2014~2016년 지속 증가하였으며, 2018년 중국 내 해외 직구 이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1억 100만 명을 기록하였다.

해외직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중국 내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증가, 해외 상품의 품질과 개성에 대한 수요 증가, 물류 유통의 발달로 인한 해외 구매 부담 감소 등이 있다.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직구의 주요 대상국으로는 일본(41.1%), 미국(35.3%), 한국(32.1%) 순을 보였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



출처 : Iresearch

<13-20년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



출처 : 첸잔산업연구원 前瞻产业研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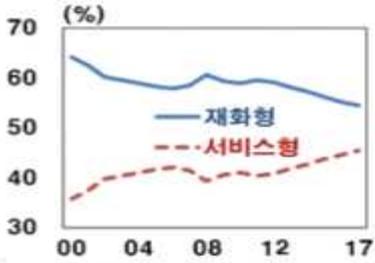
(2) 중국의 소비자

이와 함께 중국 소비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문화, 교통·통신, 의료·보건 등 서비스 비중이 2017년 기준 45.5%로 증가하였으며, 둘째 2-4선 도시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1선 도시 이외에서 구매력이 증대되었다. 셋째 밀레니엄 세대인 20대와 40대가 문화, 여행 등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¹⁴⁾.

(3) 유니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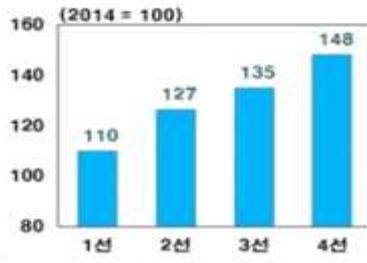
14) 한국은행, 중국 소비시장 특성의 변화와 시사점, 2018.11월

재화 및 서비스형 소비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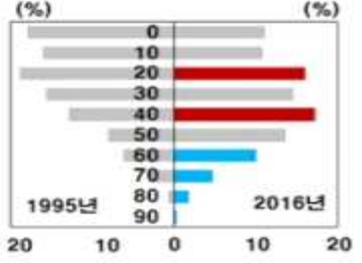
자료: CEIC

도시별 구매력¹⁾ 변화²⁾



주: 1) 도시별 인구×가처분소득
2) 2017년 기준
자료: CEIC

중국 연령별 인구분포¹⁾



주: 1) 2016년 기준
자료: CEIC

유니콘 기업은 업력 10년 미만 시장가치 10억불(약 1조원)에 달하는 비상장 기업으로, 보통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 포진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정보통신 시장조사 전문매체 CB Insight가 매년 선정하고 있는 전세계 유니콘 기업 명단을 보면,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중국의 유니콘은 82개로, 직전년도 대비 18개가 증가하였으며, 전세계 유니콘 기업 309개 중 26.5%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기업인 토크아오(뉴스앱, 기업가치 750억불), 디디추싱(승차공유서비스, 560억불), 루닷컴(핀테크, 380억불)이 각각 1,3,5위에 등극하였다는 점이다.

<2019년 전세계 유니콘 기업>

	국가	전세계 GDP 대비 경제 비중	2018년 유니콘	2019년 유니콘	증가
1	미국	28.4	116	151	35
2	중국	17.6	64	85	21
3	영국	3.8	13	15	2
4	인도	3.6	10	14	4
5	독일	4	4	7	3
6	한국	1.7	2	6	4

〈2019년 중국 유니콘 기업 명단〉

	기업명	사업분야	기업가치(억불)	유니콘 등극일
1	진르토우티아오	인공지능	750	2017.4
2	디디추싱	온디맨드	560	2014.12
3	비트대륙	블록체인	120	2018.7
4	따장혁신	하드웨어	100	2015.5
5	파즈	전자상거래/플랫폼	66	2016.3
6	리엔지아	전자상거래/플랫폼	58	2016.4
7	만빵그룹	공급망사슬/물류	60	2018.4
8	쥐란즈지아	소매	57	2018.2
9	회잉의료	위생보호	50	2017.9
10	여우빠쉬엔	로봇	50	2016.7
11	메이뤄과학기술	하드웨어	45.8	2014.7
12	상탕	컴퓨터시각/인공지능	45	2017.7
13	시아오평자동차	자동차	36.5	2018.8
14	요우시아자동차	자동차	33.5	2018.4
15	원충과학기술	인공지능	33.2	2018.10
16	콰이쇼우	사회	30	2015.1
17	로우위과학기술	하드웨어	30	2016.11
18	마오옌웨이잉	전자상거래/플랫폼	30	2017.11
19	판크	전자상거래/플랫폼	30	2010.12
20	시아오홍슈	전자상거래/플랫폼	30	2016.3
21	다미과학기술	Ed기술	30	2017.8
22	따소우처	자동기술	30	2017.11
23	위엔푸다오	Ed기술	30	2017.5
24	이상홍무그룹	부동산	28	2017.7
25	메이차이왕	식품 잡화	28	2018.1
26	즈후왕	인터넷소프트웨어	25	2017.1
27	이투과학기술	컴퓨터시각	23.7	2018.3
28	꼬창요우핀	소매	22	2018.9
29	종상회이민	-	20	2016.9
30	허진그룹	의복 장신구	20	2012.2
31	한우지과학기술	반도체	20	2017.8
32	요우크공장	부동산	30	2017.1
33	지우츠팡빅데이터	빅데이터	16.5	2018.12
34	라카라	핀테크	16	2015.6
35	차오차오추싱	온디맨드	16	2018.1
36	간이약업	생물기술	16	2014.11
37	토우위인터넷과학기술	인터넷소프트웨어	15.1	2017.11
38	웨이그룹	위생보건	15	2015.9
39	위지아	전자상거래/플랫폼	15	2015.6
40	아이회수	전자상거래/플랫폼	15	2018.7
41	하루어추싱	여행	14.6	2018.6

〈2019년 중국 유니콘 기업 명단〉

	기업명	사업분야	기업가치(10억불)	유니콘 등극일
42	투안따이왕	핀테크	14.6	2017.5
43	쿠카이상청	소비자앱	14.5	2018.3
44	풀뿌리투자	핀테크	14	2017.2
45	코우따이구매	전자상거래/플랫폼	14	2014.10
46	띠스모시	인터넷안전	12	2018.12
47	논리사고	Ed기술	11.7	2017.7
48	위후양처	자동차기술	11.6	2017.12
49	이지우피	전자상거래	11	2018.9
50	지우시엔왕	전자상거래/플랫폼	10.5	2015.7
51	이시아과학기술	사회	10	2015.11
52	APUS	이동소프트웨어	10	2015.1
53	판리왕	전자상거래/플랫폼	10	2015.4
54	빠이빠이왕	전자상거래/플랫폼	10	2015.1
55	자오강왕	전자상거래/플랫폼	10	2017.6
56	iTutorGroup사이시엔교육	Ed기술	10	2015.11
57	슈멍공장	인터넷소프트웨어	10	2017.6
58	미야왕	전자상거래/플랫폼	10	2015.9
59	iCarbonX	위생보건	10	2016.4
60	모팡아파트	설비	10	2016.4
61	후지양교육과학기술	Ed기술	10	2015.10
62	웨이하이물류	공급망사슬/물류	10	2017.9
63	통마오과학기술	인터넷안전	10	2017.10
64	이디엔정보	디지털매체	10	2017.10
65	Face++i	인공지능/안면인식	10	2017.10
66	시아오뚜두안주	전자상거래/플랫폼	10	2017.11
67	이치주어예왕	Ed기술	10	2018.3
68	땡시앙위엔	디지털보건	10	2018.4
69	회이크교육과학기술	인력자원기술	10	2018.5
70	Jolly정보과학기술	전자상거래	10	2018.5
71	따다징똥따오지아	공급망기술	10	2015.12
72	뚜안싱커피	식품음료	10	2018.6
73	지우푸그룹	핀테크	10	2015.4
74	라오후증권	핀테크	10	2018.7
75	샨송택배	공급망사슬/물류	10	2018.8
76	신양이메이	전자상거래	10	2018.9
77	아이지아생활왕	시공기술	10	2018.9
78	농신인터넷	Ag 기술	10	2018.9
79	이리엔	디지털보건	10	2018.7
80	추고속과학기술	자동차기술	10	2018.10
81	링크과학기술	디지털보건	10	2018.7
82	Geek+	로봇	10	2018.11

광동성 과학기술 일보의 2019.3.22일자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8년 유니콘 혁신기업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동 발표는 광주시 과학기술국이 주최하고, 광주시 혁신기업협회와 고성장기업연합이 주관하였다.

유니콘 명단은 크게 3개 분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 창업 10년 미만의 비상장기업으로 시장가치가 10억불에 달하는 사모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유니콘기업과 두 번째 시장가치가 5천만불에서 10억불 사이에 달하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미래 유니콘 기업과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혁신성, 성장성, 잠재력이 높은 기술기업인 고성장기업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선정한다.

2018년에는 유니콘 기업에 9개사, 미래 유니콘 기업에 20개사, 고성장기업에 10개사가 선정되었는데, 업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영업이익 등을 보여주고 있다. 유니콘 기업의 총 시장가치는 208.29억불에 달하며, 기업 평균 23.21억불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직전년도의 19.87억불과 비교하여 1년 사이 시장가치가 업체 평균 16.81%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유니콘 기업은 인공지능 분야에만 30%가 집중되어 있고, 미래 유니콘 기업은 정보기술,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생물의약, 클라우드 등 5대 신산업에 75%가, 고성장기업은 인공지능, 생물의약, 사물인터넷 등 3대 신산업에 60%가 집중되어 있어, 유니콘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광주시 유니콘 혁신기업 지표>

	선정(개)	업력(년)	R&D투자(억위안)	특허	영업이익증가율(%)
유니콘기업	9	4.78	0.33	54	452.28
미래유니콘	20	6.25	0.16	73.05	281.91
고성장기업	10	9.1	-	89	333.45

중소기업일보(zhongxiaoqiyeobao)의 2019.3.12.일 보도에 따르면, 청두시 고신기술개발구는 2018년 한해동안 신경제 산업에서 4,000억 위안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하여 직전년도 대비 20%의 성장을 하였다.

눈에 띄는 부분은 2018년 처음으로 기업가치 10억불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이원크지(yiwunkeji) 등 3개사가 탄생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고신구의 창업종자기, 가젤형, 유니콘, 플랫폼 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전주기 성장단계에 따라 입주비 보호, 인재공급 등 맞춤형 지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18년 한해에만 11,139개사가 신경제산업에 등록하였는데, 이중 유니콘 기업이 3개, 미래 유니콘 기업이 30개, 가젤형 기업이 60개사, 창업종자기 기업이 520개사를 포함하고 있다. 청두시 기업은 2019~2021년 3년간 종자기 기업 1,000개사, 가젤형 기업 500개사, 유니콘 기업 10개사, 플랫폼형 선도기업 5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니콘 기업이 이렇듯 놀라운 성과를 단기간에 이룩하였지만, 작년 공유자전거 유니콘 기업인 오포사가 도산한 이후 유니콘 기업의 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여러 국내외 여론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South China Morning Post는 2019.4.1.일자 “Chinese tech faces an innovation reality check as the economy cools ad startups stumble”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간 중국 유니콘 기업의 성공은 중국의 방대한 내수시장 규모때문이지, 기업의 진정한 혁신능력 때문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에는 큐팡, 옐로모바일, 옐앤피코스메틱, 블루홀(현 크래프트톤), 우야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6개사가 이름을 올렸으나, 전세계 유니콘 시장가치의 235억불(약 26조원)인 약 2.2%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명단>

순위	기업명	사업분야	기업가치(10억불)	유니콘 등극일
21	쿠팡	전자상거래	9	2014.5
51	엘로우모바일	모바일 소프트웨어	4	2014.11
125	엘앤피코스메틱	뷰티	1.78	2017.4
38	블루홀	게임	5	2018.8
193	비바리퍼블리카	핀테크	1.2	2018.12
86	우아한형제들	온디매드	2.6	2018.12

3. 중국의 창업 문화

위에서 보듯이 중국의 창업은 2005년까지 생계형 창업이 주류를 이루다가 2005년 이후로 기회형 창업이 생계형 창업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형 창업의 증가에는 알리바바 마윈 등 성공한 기업인을 롤 모델로 삼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중국 대학생의 열망과 정부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이 있다.

<중국의 생존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의 변화>

	2002	2005	2010	2015
생존형 창업	60	46.8	42.5	35.7
기회형 창업	40	53.2	57.5	64.3

출처 : 글로벌창업모니터링(단위 : %)

먼저 21세기 신경제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중국 IT 기업의 성공사례는 중국 대학생들에게 나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부에 대한 열망을 불어 넣어줬다.

<중국의 대표적 IT 벤처기업, TABX>

회사명	설립	설립자	상장	사업
텐센트 (Tencent) 	'98 선전	마화팅 (马化腾)	'04 홍콩 (SEHK)	온라인 메신저, 게임 등
알리바바 (Alibaba) 	'99 항저우	마윈 (马云)	'14 뉴욕 (NYSE)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등
바이두 (Baidu) 	'00 베이징	리연홍 (李彦宏)	'07, 나스닥 (NASDAQ)	인터넷 포털 등
샤오미 (Xiaomi) 	'10 베이징	레이쥘 (雷军)	비상장	모바일폰 제조 등

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알리바바 마윈이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이룬 성공사례는 중국 대학생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다. 성공후에 그는 후배기업 양성을 위해 자신의 고향 항주에 류촨즈 레노버 창업자, 귀광창 푸싱그룹 회장 등 8명의 기업가와 함께 창업사관학교인 후판대학을 설립하여 2018년말 현재까지 제5기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성공기업인의 후배기업에 대한 재투자자는 중국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활력을 넣어주고 있다.

<성공기업인의 후배기업 양성 사관학교 후판대학교 사례>

◆교육철학 : 마윈 교장은 “후판대학은 기업가에게 어떻게 돈을 버는 가를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을 가르칠 뿐이다”라며 교육목표를 밝혔다. 올해 입학식 연설에서 마윈은 “기업가는 농부가 밭을 일구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기업을 크고 강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오래 존속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학조건 : 창업 3년 이상인 기업가로 연간 매출은 3000만 위안(50억원) 이상, 3년 납세 증명서 제출, 직원수 30명 이상, 후판대학 지정 추천인 1명을 포함해 총 3명의 추천 필요

◆졸업생 : 중국에서 유명한 인공지능 업체인 커다쑤론페이(科大讯飞), 영문명 아이플라이테크의 창업주인 후위(胡郁), 디디추싱의 리우칭(柳青)총재, 동영상 커뮤니티인 콰이쇼우(快手) 창업주 수화(宿华), 어러머 창업주 장쉬하오(张旭豪), 중국의 대표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후푸스스포츠(虎扑体育) 청항(程杭) 등 약 170명이 지난 4년간 졸업

◆19년 입학생 : 유명 가수 후옌빈(胡彦斌), 중고차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신(Uxin) 창업주 다이쿤(戴琨), 샤오미 공기청정기 제조사인 즈미(智米) CEO 쑤쥘(苏峻), 앱스토어 피트니스 어플리케이션 KEEP의 개발자인 왕닝(王宁) 등 41명. 이중 여성기업가는 13명으로 역대 최고 비중을 차지

둘째로 중국 정부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7.9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중공중앙)·국무원은 <기업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우수한 기업가 정신 발양·기업가의 역할 발

취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실패를 관용하고 기업 우호적인 정서와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며 규제완화와 기업 민원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상부의 의지가 많이 묻어있다는 점이다.

<기업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우수한 기업가정신 발양과 기업가의 역할 발휘 확대에 대한 의견¹⁵⁾>

◆ (기업 실패관용) 혁신을 격려하고 실패에 관용하는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며, 기업가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중 나타나는 실책과 실패에 대해 이해와 관용 및 지원을 제공한다. 국유기업이 국유경제활동과 경쟁력 증가를 목표로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실책이 고의성, 독단성 또는 사익추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용을 베풀고, 적극 행위 기업에 대해 후원을 제공한다.

◆ (우호적 여론분위기) 실사구시, 객관공평의 원칙을 견지하며 정확한 여론 방향을 제시하며 우수기업 성과와 기여를 적극 홍보하며 혁신창업을 지원하는 긍정에너지를 발전시키며 기업가 가치를 존중하고 기업인의 혁신을 격려하는 등 우호적 여론분위기를 조성한다.

◆ (혁신발전 지원) 기업인의 혁신활동과 창조잠재력을 계발하고 혁신공간을 확대하고 상품, 기술, 영업방식, 관리, 제도 등 혁신을 이루도록 보호하며 평생 혁신창업을 추구하는 동안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도록 한다. 또한 기업인의 과학기술 소양을 키우고 기술성과 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더 많은 기업이 과학기술 정책과 표준제정 등에 참여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특허정보과 과학연구 기지를 개방하도록 한다. 기업의 혁신창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하고 창업보험, 담보와 위험분담 매커니즘 수립을 강구하도록 한다.

◆ (장인정신 유도) 건전한 품질경영 제도를 수립하고 기업인의 품질경영에 대한 전략의식을 제고하고 전문분야에 특화하도록 격려하며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지속경영과 계승을 통해 백년 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상품 서비스 혁신을 이루고 장인정신에 입각해 품질과 신용을 보장한다. 품질제고 경영활동을 전개한다. 정밀 기술과 고급인재를 양성하며 핵심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보급하며 우수브랜드를 가진 기업을 지원하며, 일류 품질과 브랜드를 가진 모범기업을 양성한다. 전통이 있는 기업의 혁신발전 의식을 계발하고 보호한다.

- ◆ (규제완화) 시장 수요에 맞게 권한이양을 실시한다.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권한이양의 범위와 정도를 제고한다. 규제완화 작업을 완수한다.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 매커니즘을 구축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과 분야에 대해 기업투자 프로젝트 보상제 개혁을 강구한다. 기업의 서비스 제공 절차를 개선하며 창구 서비스를 정교히한다.

- ◆ (정책참여) 기업의 정책참여 매커니즘을 수립한다. 정부의 중대한 경제정책 결정에 대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규범을 마련한다. 기업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공공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할 때 조정절차를 따르며 과도기를 합리적으로 둔다.

- ◆ (정보공개)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업정책을 공개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정부 데이터 개방정도를 확대한다. 기업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협회 등 제3 기관이 정책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 (민원해결) 유관부서, 규제기관과 상의 등이 기업 지원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좌담회와 기업답사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서는 유관부서, 상의, 산업협회 등이 나서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재창업을 지원하며 재창업정책을 개선하고 기업의 이전 납세기록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기업의 성공실패 사례 연구를 강화하여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 ◆ (우수기업인 양성) 유관부서간 협력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기업 양성을 위한 전략계획을 강화한다. 우수기업 양성을 국가전략 계획과 함께 고려하면서 추진하여 혁신창업 능력을 가진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전략에 대한 안목과 시장개척정신, 혁신관리 능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기업인을 양성한다.

- ◆ (모범 기업인 양성) 혁신능력, 신용, 애국심 등이 높은 해당분야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인을 표창 홍보하여 모범으로 삼는다. 기업가정신 연구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지원한다.

- ◆ (교육훈련 강화) 세계시장 개척, 전략적 사고, 혁신 능력 등 기업인 교육훈련 체계를 조속히 수립한다. 산학연간 과학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기업이 조속히 기회를 포착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창업지원제도를 수립하고 메이커 학교 발전을 지원하며 청년기업을 육성한다. 기업간 학습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기업활동일 등 다양한 형식을 교육훈련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중국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문화는 중국 대학생의 높은 창업율로 실현된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대졸생의 창업율은 8.0%로 0.8%에 불과한 우리나라보다 10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중 대학창업율 비교>

	한국	중국
대학생 창업의향	17.4%	89.8%
대졸생 창업율	0.8%	8.0%

출처 : 국제무역연구원, 한중 대학생 창업생태계 비교, 2019년 22호

중국 대학생 창업자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3-2017년간 등록된 대학생 창업자수는 265.4만명으로, 2017년 한해만해도 64.5만명의 대학생이 창업을 하여 전년동기 대비 4.8%가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대학생 창업 열기가 과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3-2017 중국 대학생 창업자 연도별 변화>

년도	청년창업자	증가율	대학창업자 수	비중	증가율	기타창업자	증가율
2013	2,608,039	-	358,305	13.7	-	2,249,734	-
2014	3,010,759	15.4	477,588	15.9	33.3	2,533,171	12.6
2015	3,476,585	15.5	558,149	16.1	16.9	2,918,436	15.2
2016	3,846,970	10.7	615,026	16.0	10.2	3,231,944	10.7
2017	4,101,751	6.6	644,532	15.7	4.8	3,457,219	7.0
합계	17,044,104	57.3	2,653,600	15.6	79.9	14,390,504	53.7

출처 : 중국 국무원, 2017년 대중창업만인혁신 발전보고, 93페이지

창업시에는 실전 경험이 중요한 바, 대학생 창업에는 재학생보다 대학 졸업후 5년이내 대졸생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013-2017년동안 재학생 창업은 18.1%, 대졸생 창업은 81.9%를 나타내었다.

15) 新华社, 中共中央 国务院关于营造企业家健康成长环境弘扬优秀企业家精神更好发挥企业家作用的意见, 2017.9.25. 부분발췌

〈2013-2017년 대학생 창업자 분류〉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합계	비중
재학생	54,039	75,542	104,018	121,130	126,653	481,382	18.1
대졸생	304,266	402,046	454,131	493,896	517,879	2,172,218	81.9

2017년 중국 대학창업자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1차산업은 1.8%, 제2차산업은 7.8%, 제3차산업은 90.4%에 종사함을 알 수 있다. 3차산업내에서 가장 많은 5대 업종은 도소매 38%, 리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3.5%, 음식숙박업 10.1%,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업 6.9%,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이 7.4%로, 전체 업종에서 75.9%를 차지하였다.

중국 대학창업자수는 주로 동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내륙인 중서부지역 창업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한해동안 동부지역에 124만명의 대학생이 창업을 하였는데, 이는 전체의 46.2%를 차지한다. 2013-2017년간 서부지역과 중부지역 대학생 창업 증가율은 각각 109.7%와 86.7%로, 동북지역의 69.8%와 동부의 66.4%와 비교하여 훨씬 더 빠른 창업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창업 붐을 놓고 국내외 언론에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시각은 정부 주도의 창업생태계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의 성장은 중국에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¹⁶⁾. 반면, 이러한 창업 붐은 국가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것이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¹⁷⁾.

16) Forbes, The rise of entrepreneurship in China, 2016.4.5

17) Livemint, Is the Chinese startup boom sustainable?, 2018.6.25

〈2017년 중국 대학창업자 업종 분포〉

업종		대학창업자수(명)	비중(%)
1차산업 : 농림어업, 축산		11,413	1.8
2차 산 업	채광업	169	0.0
	제조업	24,733	3.8
	수도가스생산공급업	854	0.1
	건설	24,711	3.8
3차 산 업	도소매업	244,782	38
	교통운수창고우정업	7,716	1.2
	음식숙박업	65,108	10.1
	정보전송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업	44,740	6.9
	금융업	1,466	0.2
	부동산업	9,192	1.4
	리스, 비즈니스 서비스업	87,066	13.5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업	47,705	7.4
	수리, 환경, 공공설비관리업	1,065	0.2
	주민서비스,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37,316	5.8
	교육업	6,926	1.1
	위생 공공근로	979	0.2
	문화, 오락업	28,226	4.4
	공공관리, 사회보장, 사회조직	19	0.0
	국제기구	16	0.0
	기타	330	0.1
	합계		644,532

출처 : 중국 국무원, 2017년 대중창업만인혁신 발전보고, 97페이지

〈2013-2017년 중국 대학창업자 지역별 분포〉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비중	증가율
동북	28,690	36,145	47,183	50,037	48,719	210,774	7.9	69.8
동부	179,133	229,813	245,961	287,821	298,002	1,240,730	46.8	66.4
중부	77,220	106,232	133,209	136,595	144,147	597,403	22.5	86.7
서부	73,262	105,398	131,796	140,573	153,664	604,693	22.8	109.7
합계	358,305	477,588	558,149	615,026	644,532	2,653,600	100	79.9

출처 : 중국 국무원, 2017년 대중창업만인혁신 발전보고, 99페이지

4. 중국의 창업자금

중국의 중소기업 금융은 직접 금융과 간접금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의 중소기업 금융도 우리나라처럼 간접금융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중소기업 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특허담보대출 등 대안적 중소기업금융 상품의 발전도 눈여겨볼만하다.

(1) 중소기업 간접금융

중국의 아이리서치(2018)는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여주는데,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용자가 불충분함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이 최종 상품과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가치는 GDP의 60%를 차지하고 세수는 국가 세수총액의 50%를 차지하는 반면, 2017년말 기준 중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잔액은 37.8%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금융기관의 용자지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자연스럽게 중국은 벤처투자 시장이 발달하게 되었다.

(2) 중소기업 직접금융

■ 주식시장

중국의 주식시장은 메인보드, 중소기업판, 창업판, 장외거래시장인 신삼판, 커황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금융제공에 있어 눈여겨볼 주식시장은 신삼판과 최근 개장한 커황판이다.

<중국의 주식시장>

	개시일	특징
메인보드	90.12	대상 : 실적이 양호하고 성숙한 대기업 상장기업 : 상하이 1,071, 선전 480개사

중소기업반	04.05	대상 : 메인보드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영이 안정된 성장기 중소기업 위주 상장기업 : 767개
창업반	09.10	대상 :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초기성장형 벤처기업 위주 상장기준이 메인보드나 중소기업반보다 낮으나 관리기준이 엄격함 상장기업 : 484개
신삼반	06.01 13.01	대상 : 신산업분야 장외기업 상장기업 : 2,695개
커황반	19.07	대상 : 과학기술형 창업기업 상장기업 : 25개사

출처 : 무역협회, 최근 중국내 창업신드롬과 시사점, 2015.7월, 필자 편집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거래시장인 신삼반 시장은 2006년 개장이후 매년 상장기업수와 시가 총액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11,63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4.9조 위안의 금액을 거래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업종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5,804개사로 전체의 49.9%를, 정보전달,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업이 2,284개사로 전체의 19.64%를 차지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광둥성이 1,878개사로 전체 상장기업의 16.15%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베이징이 1,618개사 13.91%, 장수성이 1,390개사, 11.95%, 저장성이 1,032개사 8.87%, 상해가 989개사 8.87%를 차지하여 상위 5개 성과 도시가 전체의 59%를 차지하였다.

<2014-2017년 중국 중소기업 주식이전시스템 개요>

	2014	2015	2016	2017
상장기업수(개)	1,572	5,129	10,163	11,630
시가총액(억위안)	4,591	24,584	40,558	49,404.56

<2017년 중국 신삼반 상장기업 산업분포>

업종	개수	비중	업종	개수	비중
제조업	5,804	49.91	교통운수, 우정업	197	1.69
정보기술, SW	2,284	19.64	금융업	144	1.24

상업서비스	607	5.22	전력,가스, 물 생산 공급업	130	1.12
도소매	531	4.57	부동산업	97	0.83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509	4.38	교육업	88	0.76
건설업	379	3.26	위생 사회서비스	55	0.47
문화, 체육 오락업	261	2.24	주민서비스, 유지서비스	44	0.38
농림목수산업	223	1.92	채광업	42	0.36
수리 환경 공공설비관리	198	1.7	음식 숙박업	37	0.32

2019.7월 개장한 커쥬판은 중국 자본시장 선진화의 산물로, 인공지능, 인터넷 등 신흥산업 분야의 적자기업들도 손쉽게 상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현재까지 중국 주식시장의 심사비준제(核准制)와 달리 상장 예비기업들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검증 받으면 등록절차를 거쳐 상장하는 것이다. 상장 예비기업 서류 검증 권한이 기존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아닌 하위기관인 상하이거래소로 이전됐다.

2019.7.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 정부는 2019년 커쥬판 상장기업에 600만 위안(약 1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통 큰' 계획을 발표했다. 안후이성 정부도 2018년 11월 커쥬판 상장 기업에 장려금 200만 위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창업투자

중국정부는 종자기 또는 초기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 중신소주공업원 창업투자 유한회사와 중국개발은행이 50:50의 비율로 10억 위안 규모의 창업투자기금을 설립한 것이 그 시초이다. 창업투자기금 설치건수와 투자규모는 2015년 전후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다 2017년 약간 주춤해졌다.

2017년말까지 전국에 1,501개의 정부창업투자기금이 설립되었는데,

2017년 한해만해도 255개의 기금이 설립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50.1%가 감소한 수치이며, 목표금액은 3조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29%가 감소하였다. 정부의 창업투자기금 설립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강수성이 145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광둥성 140개, 저장성 129개, 산둥성 125개, 안휘성 108개의 순이다.

중국정부는 창업투자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정부출자 산업투자기금 관리에 관한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기금의 자금 모집, 투자, 관리 및 회수에 이르는 전과정에 정보등록, 성과평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내 설립된 여러개의 창업투자기금을 통합관리하면서 투자지역과 업종 제한을 완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창업투자기금 이외에도 국가신홍산업 창업유도기금과 국가 중소기업 발전기금도 존재한다. 국가신홍산업 창업유도기금은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와 개발투자회사 등이 전기차, 전자상거래 등 전략신홍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6년에 760억 위안 규모로 결성하여 기금의 80%를 창업투자기금에, 나머지 20%를 성장기 기업에 투자해 오고 있다. 2017년말까지 313개의 자기금을 설치하여 2,700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국가 중소기업 발전기금은 재정부에서 중소기업 유망산업 및 수공예 등 민족특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5억 규모로 결성하여 2019.6월까지 126개의 투자프로젝트에 36억 위안의 금액을 투자했다.

초기투자기금의 모집건수와 투자금액 또한 2015년 중국정부의 상창정책 이후에 대폭 증가하였다. 2017년 한해동안 146개의 초기투자 자기금이 설립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15%가 증가한 수치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199.3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7.5%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초기투자기금 증가에는 중국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한몫하였는데, 매년 저장성 정부는 연간 예산에서 3억 위안을 배정하여 시

현정부가 투자하는 종자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8~2017년 중국의 초기투자기금 모집 현황〉 (단위, 개, 억위안)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3	3	8	13	20	30	39	124	127	146
금액	2.9	16.3	14.3	15.9	27.8	23.3	65.7	203.6	169.6	199.4

모집된 초기투자기금이 실제로 투자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한해만 2,012건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1.9% 하락한 수치이다. 금액기준으로는 147.4억 위안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20.4%가 증가하였다.

〈2008~2017년 중국의 초기투자기금 투자현황〉 (단위, 개, 억위안)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25	40	96	176	136	169	766	2,075	2,051	2,012
금액	1.4	0.9	4.8	9.9	3.5	12.2	32.4	101.9	122.4	147.4

초기투자기금의 업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50% 이상이 인터넷, 정보기술, 오락매체 등 3대 업종에 투자되었다. 2017년 한해동안 인터넷에 대한 초기투자 건수는 469건, 34.78억 위안이 투자되었으며,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은 390건, 21.9억 위안이, 오락매체는 236건, 15.03억 위안이 투자되었다.

〈2017년 중국의 초기투자 업종분포〉 (단위, 개, 억위안)

	투자건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인터넷	469	23.31	34.78	23.59
정보기술	390	19.38	21.9	14.85
오락매체	236	11.73	15.03	10.2
전신	222	11.03	11.03	7.48
바이오 의료	139	6.91	10.1	6.85

금융	124	6.16	114	10.76
교육훈련	83	4.13	77	4.1
전자 광전설비	62	3.08	55	2.24
기타	60	2.98	51	4.95
프랜차이즈	56	2.78	51	4.49
자동차	30	1.49	25	1.97
기계제조	25	1.24	25	1.17
물류	25	1.24	24	1.39
청소기술	23	1.14	19	2.89
식음료	16	0.8	14	0.69
부동산	10	0.5	9	0.57
건설 프로젝트	7	0.35	7	0.33
의복 방직	6	0.3	6	0.41
농축산	5	0.25	0.13	0.09
화공원료 가공	4	0.20	0.50	0.34
반도체	2	0.10	0.07	0.05
기타	18	0.89	0.85	0.57
합계	2,012	100	147.43	100

초기투자기금의 지역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창업생태계를 보유한 북경, 상해, 심천이 60% 이상이 투자되었다. 2017년 한해동안 북경에 714건, 58.7억 위안이, 상해에 344건, 22.8억 위안이, 심천에 209건, 14.2억 위안이 투자되었다. 안휘, 후북, 후난 등 중서부 지역에서도 초기투자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안휘성에서는 20억 위안 규모의 종자기 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시성 채정부에서도 매년 3억 위안을 투자하여 산시 용자담보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초기투자 지역분포〉 (단위, 개, 억위안)

	투자건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북경	714	35.49	58.72	39.83
상해	344	17.1	22.83	15.48
심천	209	10.39	14.17	9.61

저장	168	8.35	13.76	9.33
후베이	121	6.01	1.0	0.68
광둥(심천제외)	100	4.97	6.97	4.73
강수	89	4.42	7.21	4.89
사천	38	1.89	1.96	1.33
복건	38	1.89	2.7	1.83
산시	26	1.29	0.82	0.55
후난	26	1.29	1.12	0.76
안휘	19	0.94	2.43	1.64
천진	18	0.89	3.86	2.62
산둥	11	0.55	0.63	0.42
허난	10	0.5	1.25	0.85
충칭	8	0.4	0.43	0.29
해남	7	0.35	0.33	0.22
신장	7	0.35	1.04	0.71
요령	7	0.35	0.29	0.2
길림	6	0.3	0.31	0.21
강서	4	0.2	0.14	0.09
내몽골	3	0.15	0.05	0.03
귀주	3	0.15	0.12	0.08
허북	3	0.15	0.22	0.15
광서	3	0.15	0.08	0.05
윈난	1	0.05	0.25	0.17
산서	1	0.05	0.01	0.01
기타	11	0.55	1.03	0.7
미공표	17	0.84	3.72	2.52
합계	2,012	100	147.43	100

■ 벤처투자

중국의 벤처투자의 역사는 1999.7월 상해제일 백화점유한공사가 시메이러 회사에 5,250만 위안을 투자하여 초대형 프로젝션 스크린 TV를 생산하도록 도와준 사건이 처음으로 기록된다. 최근 몇년간 중국의 벤처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예전과 다른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벤처투자 건수와 금액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여 중국의 상창 정책이 발표된 2015년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6년부터 약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전과 비교할 때 투자건수로는 17배, 투자금액으로는 87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투자업종을 살펴보면, 인터넷, IT, 전신, 오락매체 등 4대 산업이 투자건수와 금액면에서 각각 전체의 76.6%와 67.5%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러한 벤처투자를 주도하는 주체로는 중국의 대표 대기업인 알리바라, 바이두, 텐센트 등이 있다. 그중 텐센트가 중국의 벤처투자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우리나라 창업활성화 정책 수립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1998년 설립하여 지난 20년간 게임, SNS, 인터넷 금융 등 글로벌 IT기업으로 성장한 텐센트는 2011년 50억위안(약 8,000억원) 규모의 텐센트 산업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을 발표하고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쌍100지원계획’을 통해 3년간 산하 창업시설에 100억위안(1.7조원) 상당의 사내자원을 투입하여 기업가치 1억 위안의 창업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유망창업아이템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사무시설 무상임대, 창업교육, 투자기관과 대기업 연결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수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8년까지 10년간 텐센트는 700여개의 기업에 투자하여 63개사를 상장시키고, 이외에도 122개사를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징둥(전자상거래), 메이투안(외식배달), 디디추싱(차량공유서비스), 루팍스(인터넷 자산관리), 터우타오(미디어) 등 업체들은 업계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여 강력한 O2O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2008~2017년 3분기 중국의 벤처투자 분포〉 (단위, 개, 억위안)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23	30	61	112	145	229	505	828	721	401
금액	12	11	22	69	43	233	644	1,031	889	1,051

〈2008~2017년 3분기 중국의 벤처투자 업종분포〉

	인터넷	IT	전신	오락매체
건수 비중(%)	33.3	17.8	15.43	10.02
금액(억위안)	1,258	595	585	264

〈중국 7대 벤처투자 대기업〉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텐센트	72	70	110	84	127	463
알리바바	38	42	58	32	55	225
징동	2	9	54	25	43	133
샤오미	8	35	23	16	41	123
푸싱그룹	10	26	25	37	39	137
바이두	28	17	30	17	33	125
하이얼	2	2	12	13	17	46

5. 중국의 창업 인재

(1) 창업 인재 정책

중국정부는 국내외 고급인재 유치를 통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1994년 백인계획을 시작으로, 2008년 천인계획, 2012년 만인계획을 내놓았다.

백인계획은 덩샤오핑이 매년 100명 이상의 유학파를 국내로 귀국시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동 계획은 2008년 천인계획으로 이어졌다.

천인계획은 후진타오 주석이 향후 10년간 국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 등에게 최대 15억원의 현금지원과 연구 지원 및 자녀 교육 등 다방면의 파격 지원을 한 제도를 일컫는다. 동 계획으로 19년 현재까지 약 8천여명의 고급인재가 중국으로 유입되어 중국의 기술굴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에 발표된 만인계획에는 노벨상 수상이 기대되는 인재 100명을 육성하겠다는 점도 포함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산업분야에서 만인계획을 통해 많은 인재가 유입되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지방정부에서도 경쟁적으로 천인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19년 초까지 과학기술 고급인재 유치정책을 내놓은 지방정부는 쓰촨성 등 16개로, 고급인재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출입국, 비자, 거류 등 전반에 걸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귀국 유학생 창업원

중국의 고급인재를 유치하는 데 있어 주목할만한 정책은 귀국유학생 창업원 설치이다. 귀국 유학생 창업원이란 해외에서 학사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특허, 연구성과, 전문기술 등을 이용해 귀국한 뒤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곳으로, 유학생이 대표를 맡거나 전체 투자금의 30%이상을 투자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1994년, 난징에 처음으로 귀국유학생 창업원이 설립된 후 2017년말까지 전국에 351개가 설립되어 있다. 2017년 한해동안만 해도 4개의 유학생 창업원이 설립되어 4천개의 귀국유학생 창업기업이 입주하여 7천명의 창업자가 탄생하였다.

귀국 유학생 창업원이 급증한 원인에는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는데, 중국 정부는 귀국유학생 창업자에게 정착(거주)→기업설립→비즈니스(마케팅)→자금조달 등 포괄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는 2017년말 기준으로 귀국유학생 서비스연맹에 가입한 회원기관이 117개사가 존재한다. 이들 기관은 창업멘토링, 정책 설명, 법인세

감면, 창업담보 대출, 임대료 면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귀국 유학생 창업은 중국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신흥산업 중심으로 특히, 상장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어, 앞으로도 중국정부의 다양한 고급인재 유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학생 창업원 연도별 현황〉

	유학생 창업원수(누계)	입주기업수(만개)	창업자수(만명)
2012년	260	1.7	4
2013년	280	2	5
2014년	305	2.2	6.3
2015년	321	2.4	6.7
2016년	347	2.7	7.9
2017년	351	3.0	8.6

출처 : 중국 국무원, 2017년 대중창업만인혁신발전 보고, 100페이지

중국 귀국유학생 창업단지의 성과 요약

종류	구체 내용
입주 업종	IT, 바이오의약, 첨단제조업, 신소재, 친환경 등 첨단 분야 위주
유학생 학위	전체 인력의 80%이상이 해외 석사와 박사
특허 취득	창업단지 당 평균 309건(가장 많은 단지는 2,300건)
자금 조달	창업단지 당 1.93억 위안(대부분 주식담보 융자)
상장 실적	뉴욕거래소(6개), 나스닥(5개), 싱가포르(3개), 중국 등 50개 기업

출처 : 무역협회, 중국 귀국유학생 창업단지 운영 현황 및 시사점, 14.9월

(3) 창업교육훈련

■ 대학생 창업 교육훈련

중국은 2020년 혁신형 국가 진입을 위해 2005년부터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실전능력 배양을 위해 ‘기업이해’ (know about business, KAB)라는 창업교육 과정을 개설하였다. 동 교육과정은 온라인을 통한 모의창업, 기업 탐방 등을 통해 창업과정을 먼저 체험해 본 후 이론교육을 듣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중국 국무원은 대학생 하이테크창업실습기지에 창업하는 대졸생을 대상으로 1년간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자문, 정보 등 일련의 종합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같은해 지역별로 대학 재교생 및 대졸생을 위한 대출 지원책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베이징의 경우 1억 위안(약 1억 7천만원) 대출, 대출이자 보조, 소액담보대출 면제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인력자원부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2014~2017년간 80만명의 대학생 창업을 목표로, 창업교육 보급, 창업훈련, 사업자등록 및 계좌개설 편의, 다양한 자금 지원, 창업 장소 제공, 창업공공서비스 제공 등 6가지 시책을 통합제공하는 내용의 ‘대학생창업유도계획’을 실시하였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대학생 창업지원책들이 마련되기 시작되었다. 탄력적인 학사관리를 도입해 대학 재학생의 창업을 허용(창업휴학제 도입)하고, 창업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각 분야 우수 기업인 등 1만명의 인재풀 중 우선적으로 4,600명의 우수 창업멘토를 선정하여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베이징대, 칭화대 등 대학생 창업교육 개혁 심화를 위한 시범 대학교 200개를 선정하여 창업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 분야별 창업교육훈련

중국 정부는 2017년 한해만해도 농민, 대학생, 유학생, 부녀자 등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교육을 총 219.2만건 실시하였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멘토를 초빙하여 유학생 귀국창업 고급연수반 과정과 전국 유학생 귀국서비스 능력 양성반 등을 개최하였으며, 부녀자를 대상으로 총 552만번(누계)에 달하는 교육훈련을 제공하였다.

교육훈련이 끝난 후에는 창업 의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 신홍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인큐베이팅과 종합서비스 지원 등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제공하여 부녀자, 농민

등 각계 각층의 창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창업훈련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양성된 창업훈련강사는 2017년 누계기준으로 6만명에 달하며, 2017년 한해에만 230회의 교사양성반을 개최하였으며, 6,460번의 창업훈련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 최초로 중국 인사부에서 주최하여 창업훈련 강사대회를 전국 단위에서 개최하여 창업훈련 강사의 교육경험을 교류하고 창업성과를 전시하는 등 창업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도 전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 약 2만명을 두고 있는 바, 2019년부터 35개 대학에서 4년제 인공지능 학과를 개설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 창업인큐베이터 종사자 교육

중국 전국 32개 성, 시, 자치구에 35개의 창업인큐베이터 종사자 교육 훈련 기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2017년 한해에만 5,300명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였다. 이러한 창업인큐베이터 교육훈련기구는 창업보육분야에서 지원서비스 기구의 질적 발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창업인큐베이터 교육훈련은 중국 과기부가 주최하고 중국기술창업협회가 주관하며 전문교육훈련기구가 참가하는 형식으로 전국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한 각 기구들의 경험 교류 및 정보 공유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업인큐베이터 교육훈련사업이 활발해진 배경에는 전국적으로 창업인큐베이팅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가 폭증하였기 때문인데, 2017년 기준

으로 교육훈련생이 가장 많은 지방정부는 광둥성(2,021명), 심천시(1,954명), 강수성(1,814명), 사천성(1,103명), 저장성(981명) 순이었다. 교육훈련생 비율은 국가급이 24%, 성급, 지급, 현급이 각각 20%, 18%, 18%를 차지하였으며, 민간인큐베이터 훈련규모는 2,568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교육훈련 형식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분임조, 우수 인큐베이터 참관, 로드쇼 등 새로운 형식이 등장하여 교육훈련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으며, 교과과정도 훈련생의 수요와 업계 동향 등을 반영하여 내실화, 전문화 되고 있다.

최근 디플로멧 잡지(2018.2.17.)에서 저자는 중국 정부의 공급형 창업접근법은 중국의 창업 버블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방문한 세군데의 인큐베이터와 특별경제구역 모두 사람이 한산한 고스트 타운이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인큐베이터 모두 특별한 특징이 없이 같은 회사를 고객사 명단으로 게재를 하고 있었는데, 인큐베이터가 활발히 운영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한다.¹⁸⁾

이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연구 성과가 사장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국가기술이전체계를 구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시장을 통한 기술성과의 보급, 공유, 응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중국의 창업 정책과 지원

(1) 중소기업 법령

중국 정부는 2017.9.1. 중소기업촉진법을 수정(2002년 6.29일 최초 통과)하였으며, 동법은 2018.1.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총 10장 6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은 제4장 24조~31조까지에 이르며, 혁

18) The Diplomat, 2018.2.17., "China's State-Backed Start-up Push"

신은 제5장 32조~37조에 이른다. 창업과 혁신과 관련된 조항은 절차간소화, 세제, 재정지원에서부터 연구개발, 산학협력, 혁신거점 구축, 인재 육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중국 중소기업촉진법 창업혁신 관련 조항〉

조문	
24	각현급이상의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정부 사이트를 통해 창업자에게 상업, 재무, 세제, 금융, 환경보호, 생산안전, 노동, 사회보장 등에 관한 법률행정 자문과 공공 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5	각 대학졸업생, 퇴역군인과 실업자, 장애인 등 미세 소형 기업은 국가규정에 따라 세제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얻는다.
26	국가는 사회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게 투자하는 조치를 취한다. 창업투자기업과 개인투자자는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게 투자한다.
27	국가는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심사과정을 간소화하며 중소기업의 행정허가 편리성을 제고하고 기업설립 비용을 낮춘다.
28	국가는 미세 소형기업을 위한 창업기지, 인큐베이터 설립을 촉진하고 미세 소형기업을 위해 생산경영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29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 수요에 맞게 농촌 계획시 필요한 용지와 설비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생산경영장소 획득시 편리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는 유희부지와 산업공장, 물류설비의 이용을 지원하고 창업자를 위해 저렴한 생산경영장소를 제공한다.
30	국가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기술, 연구개발, 마케팅 등 자원을 개방하고 자원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1	국가는 중소기업의 기업등록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시장 퇴출 편리성을 실현한다.
32	국가는 중소기업이 시장 수요에 맞게 기술, 상품, 경영방식, 산업방식 등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중소기업의 고정자산은 기술진보 등 원인으로 인해 가속상각이 필요할 경우 상각연도를 단축하거나 가속상각방법을 취할 수 있다. 국가는 중소기업연구개발비용 공제 정책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33	국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설비, 생산제고, 운영관리등 응용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현대기술수단과 혁신생산방식에서 지원하고, 생산경영효율을 제고한다.
34	국가는 중소기업이 산업의 핵심 범용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재정자금으로 설립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국가는 군민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국방과학연구와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유관 산업조직이 표준제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35	국가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술과 상품을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운영의 능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신청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등 부담을 경감한다.
36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규제, 부지, 재정 등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혁신서비스 기구를 설립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국가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기구가 중소기업에게 기술정보, 연구개발설계와 응용, 품질 표준, 실험실습, 검사, 기술이전, 기술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성과 이전을 촉진하며 기업의 기술과 상품 개선을 촉진한다.
37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대학 졸업생이 중소기업에게 취업하고 중소기업이 혁신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육훈련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연구기구, 대학교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을 위해 실험설비를 개방하고 기술연구개발과 협력을 수행하며 중소기업이 신상품을 개발하고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연구기구, 대학교 지원기구의 과학기술인재가 겸직 등을 통해 프로젝트협력 등 형식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산학연 협력과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을 수행하고, 국가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얻을 수 있도록 권장한다.

(2) 중앙 정부의 창업정책

■ 창업정책 일반

리커창 총리는 2014.9월 다보스포럼 회의에서 “960만 킬로미터의 전국토에서 대중창업, 풀뿌리 창업의 신조류가 일어나고 만중창신과 모든사람이 혁신을 하는 신동향이 형성되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후 2015.3월 정부업무보고에서 ” 대중창업 만중혁신 촉진하는 것은 취업을 확대하고 국민소득을 증대하며 사회의 수직적 이동과 공평정의에 유리하다 “고 보고하였다. 바로 이어 2015.6월 국무원에서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대대적 추진을 위한 국무원의 약간의 정책조치 의견을 발표하면서 정식으로 중국정부의 상창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정부의 상황 정책은 중국이 중고속 성장으로 진입하면서 직면하게 된 취업난의 시대적 상황에서 대중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만인의 창업 촉진과 국부 증진을 도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5.7.4.~2016.10.31일까지 인터넷플러스와 관련된 정부정책 253건과 2014.12.1.~2016.10.31일까지 상황과 관련된 정부정책 307건을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키워드 등을 분석하였다.

<상황 정책도구 분류방법>

유형	명칭	빈도율
공급형	플랫폼 및 기지 건설, 인재육성, 기초시설 마련, 투자, 전용기금, 공공서비스, 부지 지원	34.72
환경형	투융자 지원, 세제혜택, 법률 제정, 표준규범 마련, 지재권, 관리감독, 인재격려, 크로스융합	58.33
수요형	정부조달, 시범기지	6.95

<인터넷 플러스와 상황 정책 키워드 빈도수 분석> (단위: 개)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수
플랫폼/기지 건설	31	관리감독	16	클라우드	14
빅데이터	23	기초시설	16	창업공간	131
표준규범	21	전용기금	15	투융자	12
공공서비스	19	보조	15	안전	12
인터넷	18	자원개방공유	15	과학연구소	12
매커니즘개선	18	대학교	14	법률법규	11
중소기업	17	사물인터넷	14	세제혜택	11

■ 2017년 중앙정부의 상황 정책

2017년 국무원은 중국의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하여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4.3일 ‘현재와 미래 일정한 시기에 창취업 촉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6.29일에는 세무총국과 재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민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점 그룹의 창취업 촉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세수정책의 구체적 운영문제와 관련된 공고’를 발표하였다.

특히 4.3일 문건에서는 영세기업을 통한 취업난 해결을 위해 일련의 감세 및 부담경감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영세기업의 혁신 강화를 위해 과학연구 기구의 개방 촉진 및 연구개발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2018년에는 국무원의 상창정책 개정(업그레이드)판을 발표하였으며, 개정판은 다음과 같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부와 위원회 및 각 직속기구에
혁신은 발전을 인도하는 제1의 동력이자 현대화 경제시스템 건설의 전략이
다. 최근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더 많은 범위와 계층으로 지속적으로 확산
되고 있으며, 혁신창업과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신규 성장동력 전환 및
경제구조개선, 취업 증가, 민생개선, 사회공정 실현, 사회계층 이동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등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중국경
제는 고성장 단계에서 질적성장 단계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대중창업 만중
혁신 촉진을 위해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였다. 혁신동력 발전전략 강화, 시
장활력 및 사회창조력 자극, 혁신창업의 질적 발전 촉진을 위해 상창정책
업그레이드판 제정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추진배경

대중창업 만중혁신 촉진은 혁신동력에 의한 발전전략 강화를 위한 중요
한 토대이며 공급측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중요한 경로이다. 대중창업 만
중혁신이 활발해짐에 따라 혁신창업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창업주체
다양화, 각종 지원플랫폼 확대, 혁신창업 사회분위기 강화, 혁신창업이념
강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혁신창업 생태계가
여전히 미흡하며 과학기술 성과 이전 매커니즘이 불완전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미흡, 혁신창업 국제협력 부족, 정책의 현장 적용 등에 부족한 점
이 있다. 이에 상창 업그레이드판 제정을 통해 혁신창업의 질적 발전을 촉
진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한 고용 유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 활력 제
고, 질적 공급 확대, 유효 수요 유발에 도움이 되므로 경제발전의 내생동력
강화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① 지도 사상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가운데 당
의 제19차 전체회의 정신을 실현하고 신발전 이념을 유지하고 공급측 구조
개혁을 주요 노선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질적 발전 수요에 따라 혁신동력
에 의한 발전전략을 강화하고 상창 업그레이드판 제정을 통해 혁신창업 환
경을 개선하며 창업 비용을 크게 낮추고 창업에 의한 고용 유발효과를 강
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의 유발 효과를 강화하며 지원플랫폼의 서비스 능력
을 제고하고 온오프라인 융합, 산학연 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혁신창
업 구조 강화는 신성장 동력 창출 확대 및 충분한 고용 유발 및 경제의 질
적 발전을 위해 견실한 토대를 제공한다.

② 주요 목표

- 가. (혁신창업서비스 개편) 혁신창업자원 공유 플랫폼을 완비, 시장화 전문화 중창공간 기능 지속 확대, 창업투자 지속 확대, 초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대한 관심 증대, 새로운 혁신창업 서비스업의 질적 개선
- 나. (혁신에 의한 고용유발 효과 증대) 활력있는 시장 주체 양성, 직접 고용유발 확대, 연관산업으로의 취업 확대, 취업의 공평한 기회 및 사회 계층 이동 촉진, 혁신-창업-취업으로 이르는 선순환 구조 실현
- 다. (과학기술 성과이전 응용능력 증대) 과학기술형 창업 확대, 산학연 협력 증대, 과학기술 혁신과 전통산업 융합 촉진, 과학기술혁신과 산업발전 주체의 다원화, 전략신흥산업 발전 가속화
- 라. (우수한 혁신창업단지의 지속 출현) 상왕 시범기지 건설 촉진, 정책 성과 확대 보급, 국가급 신규, 국가자주혁신시범기지 등 각종 기능구 확대, 혁신창업 신고지 건설
- 마. (대중소기업 가치사슬의 유기적 융합) 고급과학기술 인재, 성공 기업인, 전문 창업투자자의 지원세력화, 대중소기업, 연구소간 혁신자원 요소의 원활한 이동 및 온오프라인, 대중소기업간 융통발전 수준의 제고
- 바. (국내외 혁신창업 자원의 융합 촉진) 혁신창업 국제교류 협력 전개, 글로벌 혁신창업 트렌드 융합, 혁신창업 국제단지 건설 촉진, 일로 일대 국가와 국제협력 강화

2. 추진과제

(1) 혁신창업 환경개선 촉진을 위한 노력 경주

- ① (정부의 권한 이양) 창업절차편리성 제고, 기업등기말소 제도개혁 촉진, 구역 평가제도의 적극 추진, 일정 구역내 지질 재해, 수질 토양 보호 평가 추진. 심사항목, 추진절차, 데이터 교환 등 표준화작업 구축 촉진, 공공데이터 자원 개방의 점진적 추진, 정부와 사회의 데이터 자원, 인터넷 디지털 자원 구축 가속화, 시장과 공정 경쟁 규정과 방법 통일에 장애 요소 제거, 전국 통일의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가속화, 목록상태조정 매커니즘 구축(시장관리감독총국, 자연자원부, 수질부, 발개위)
- ②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사회신용체계 구축 강화, 신용승락, 정보공시, 신용등급분류, 신용 상벌 등 전주기 신용관리감독 체계 구축. 생물제조, 신재료 등 영역에 대한 심사기준 수정, 첨단기술 영역의 혁신활력 자극.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 인도, 공유경제플랫폼 기업의 책임 이행. 인터넷과 교육, 의료 등 신산업 융합의 고효율 관리감독체계 구축, 사회 안정과 안전 보장(발개위, 시장관리감독총국, 공신부, 교육부, 위생건강위원회)

③ (서비스 편리성 제고) 전국 원스톱 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 가속화, 국가 데이터공유교환 플랫폼체계 구축, 데이터 공유책임 목록 제도 보급, 데이터 공유 응용사례 및 경험 보급 촉진. 시현에서 농촌 혁신창업 정보서비스 창구 구축. 신취업형태에 적합한 고용 사회보험 제도 개선, 인터넷 사회보험제도 구축 가속화, 산업용지정책의 적극 이행, 성현의 저효율 용지 재개발 촉진, 유희용지의 창업 활용 등 용지 구조 개선(국무원 판공청, 발개위, 시장관리감독총국, 농업농촌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2) 혁신창업발전동력 강화

① (재정세제 정책 강화) 기업의 총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감세 및 비용절감을 강화하고 시장 활력 자극.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만 적용되었던 연구 개발비용의 가산 공제비율 75%를 모든 기업에 적용 확대. 개인 주식 거래시 2급시장에서 매매한 장외거래 주식과 상장기업 주식을 대조하여 차익에 대해 개인소득세 면제. 국가급 과학기술형 기업 인큐베이터와 대학의 과기원이 혜택을 보고 있는 임대료 및 부가세 면제 등 우대정책의 대상을 성급으로 확대 적용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중창공간에도 확대(재정부, 세무총국)

② (혁신창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부조달 등 정책조치 개선) 혁신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조달 정책 개선. 구매정책 기능을 발휘하여 중요한 혁신상품과 서비스 및 핵심연관기술에 대한 구매력을 강화하고, 우선구매, 정부 발주 등 비 경쟁입찰 방식 확대(발개위, 재정부, 공신부, 과기부)

③ (기술장비시범응용 가속화) 시장의 힘을 활용하여 기술장비 연구혁신을 촉진하고 검측평가 및 시범응용체계를 구축. 기술장비혁신 목록과 연구개발 지침 등을 작성. 대기업과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기술장비혁신연구원을 설립. 시범응용기지과 연맹을 설립. 국민 합동으로 기술상품발전과 보급응용을 가속화. 만인혁신, 클라우드 펀딩과 가상커뮤니티 등 다양한 혁신방식을 통해 중소기업 등 혁신주체가 기술장비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혁신성과의 시장 매칭을 촉진(발개위, 과기부, 공신부, 재정부, 국가자원위원회, 위생건강위원회, 시장관리감독총국, 에너지국)

④ (완벽한 지식재산권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지재권 평가 및 위험억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구가 지재권 담보 대출을 모색하도록 촉진. 지재권운영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재권교역시장을 점진적으로 구축. 혁신주체가 최첨단 기술에 대한 지재권을 창출하고 전략적 고가의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격려 및 지지. 인터넷 플러스 등 중점영역을 중심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지재권국, 재정부, 은행보호감독위원회, 인민은행)

(3) 창업에 의한 취업유발 지속 강화

① (과학연구원의 기술창업 격려 및 지지) 과학교육기관에 차별화된 분류지도를 실시하여 과학연구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혁신형 부서 관리실시세칙을 개선. 과학연구원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연구원이 과학기술 성과를 이전하는 과정 중에 보인 성과와 창업프로젝트를 직무능력 평가, 직위모집, 업적 평가, 수익 배분 등에 근거자료로 활용. 연구원에 의한 학교기업 창업 및 겸임 매커니즘 구축 및 개선(과기부, 교육부, 인력자원부)

② (대학생 혁신창업 교육훈련 강화) 전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창업자문제를 보급하고 혁신창업교육 및 실천과정을 고등교육의 필수이수과목으로 의무화하고 대학생의 창업성과를 학위논문답변시 대체하도록 허가. 고등교육기관 및 직업학교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참여형 실습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원(교육부, 인력자원부, 공청단)

③ (농민공 귀향 창업서비스체계 정비) 농민공 귀향 창업 시범사업을 강화하고 시범현을 양성. 금융기구가 시장화와 상업의 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라 농촌의 상창혁신원과 공공서비스플랫폼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 매년 일정비율의 토지이용계획을 배분하여 농촌의 신산업과 업태의 융합발전을 지원(인력자원부, 농업농촌부, 발개위,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재정부, 자연자원부, 공청단)

④ (퇴역군인 창업 지원 활성화) 퇴역군인 양성 강화, 직업교육학교, 창업교육훈련센터 등 기구를 통해 창업의식 제고, 창업지식 강화, 창업프로젝트 지도, 기업경영관리 훈련 등 활동 전개. 퇴역군인 창취업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신업태 창업시 세제혜택 제공 등 지원. 퇴역군인 창업플랫폼의 지속적 개선을 촉진하고 혁신창업 대회 참가 등 지원(퇴역군인부, 교육부, 인력자원부, 세무총국, 재정부)

⑤ (귀국인재 및 외국인의 혁신창업 편리성 제고) 귀국 유학생 창업지원계획 강화 및 고급인재 귀국창업 프로젝트 선발 등 지원. 귀국 유학생과 외국인 고급인재 서비스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비자발급, 출입국, 사회보험, 지적권보호, 현지정착, 영주권 획득, 자녀 교육 등 지원 강화(인력자원부, 외교부, 공안부, 이민국, 지적권국, 지방정부)

⑥ (단체창업 촉진) 여성창업 및 홍콩, 마카오 청년 창업 등 창업의 편리성 제고. 대만과 경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대만인의 중국내 창업시 편리성 제고. 또한 해외화교의 자금과 지식을 활용하고, 화교혁신창업기지와 화교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 해외인재의 혁신창업기지 구축 지속 추진. 티베트 등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평생직업훈련제도 실시하고 창업계획과 훈련 필요가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훈련 제공(전국부녀자연맹, 홍콩 마카오사무판공실, 대만사무판공실, 화교사무판공실, 인력자원부, 중국과학협회, 발개위, 국가민족위원회)

(4) 과학기술혁신지원능력 제고

① (혁신형 기업 활용 강화) 중점영역과 프로젝트에서 국가산업혁신센터와 국가기술혁신센터 등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플랫폼 자원의 집적화를 충분히 활용.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과학기술단체와 고등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연맹체를 구축. 전문 중소기업(专精特新)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핵심산업 범용기술 연구개발 참여 촉진, 기업의 혁신능력 지속 제고, 혁신능력 보유 제조 우수기업 양성. 기업인의 혁신창업 정책결정과정 참여 활성화(발개위, 과기부, 중국과학협회, 공신부)

②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혁신창업 참여 활성화) 과학기술자원의 개방공유 매커니즘을 구비하고 연구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자문, 서비스,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도록 격려. 또한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념실증, 인큐베이팅 등 기초연구성과이전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과기부, 교육부)

③ (과학기술성과 이전 체계 구축) 과학기술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혁신을 강화. 국가재정지원이 된 과학기술성과정보 공유매커니즘 개선 및 과학기술성과의 시장 매칭 활성화. 과학연구원의 과학기술성과 소유권 또는 장기사용권 부여 시범추진. 고등교육기관의 과학기술이전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산업, 투자 매칭을 촉진. 국가급 기술이전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기관, 연구원이 기술이전 전문기구를 구축하도록 격려. 기술이전 성사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이전서비스 기구, 기술계약등기소, 기술중개인 등에게 배분하도록 격려(발개위, 과기부, 교육부, 재정부)

(5) 혁신창업플랫폼 서비스 품질 제고

① (인큐베이터와 중창공간의 서비스 수준 제고) 중창공간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중창공간의 전문성, 서비스 수준 제고하고 일정한 수준의 과학연구 기초를 갖춘 시장 주체가 전문성을 갖춘 중창공간을 구축하도록 격려. 중앙기업, 과학연구소, 고등교육기관과 유관 공공서비스 기구가 독립법인 자격의 인큐베이터를 구축하여 초중기 기업을 위해 공공기술, 검사서비스, 재정회계, 법률정책, 교육훈련, 관리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 전면적으로 창업인큐베이터 시범기지 구축을 지속추진. 생산제조 유형의 기업이 공방실을 구축하도록 격려. 인큐베이터기구연맹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해외인큐베이터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해외인재의 국내 창업을 촉진. 인큐베이터기구의 세수정책을 실시(과기부, 국가자원위원회, 교육부, 인력자원부, 공신부, 재정부, 세무총국)

② (대중소기업의 융합발전플랫폼 구축) 대중소기업의 융합발전을 위한 전문행 동계획을 실시, 인터넷 기반 대중소기업 혁신창업 플랫폼, 국가중소기업 공공서비 스 시범플랫폼 구축 가속화. 국가 미형기업의 혁신창업 시범기지 구축 촉진, 제조 업 상황 기술이전센터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 공급망 사슬내 혁신과 응용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간 전문분업 협력에 의한 공급망사슬 체계 형성 가속화. 대 중소기업의 사내창업을 장려하고 공익성 창업기금 조성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사내창업 프로젝트에 투자 등 참여하도록 격려. 국유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혁신 창업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혼합소유제 개혁과 혁신창업을 촉진(공신부, 상무부, 재정부, 국가자원위원회)

③ (인터넷 혁신발전 강화) 산업인터넷이 스마트 제조, 전자상거래 등과 유기적 으로 결합 발전하도록 가속화. 산업인터넷 3년행동계획을 실시하고 재정세수정책 을 활용하며, 산업구조조정자금을 활용하여 산업인터넷 발전을 지원. 체계적인 산 업인터넷 플랫폼 구축을 촉진하고 산업소프트웨어 발전을 가속화하고 산업인터넷 응용혁신생태계를 양성.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업인터넷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산 업인터넷 시범기지를 건설. 전문인재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인터넷 2급 학과를 제 정(공신부, 발개위, 교육부, 과기부, 재정부, 인력자원부)

④ (인터넷 플러스 혁신창업서비스 체계를 개선) 국가혁신창업정책정보서비스망 구 축을 촉진하고, 일정에 맞춰 혁신창업 선진경험과 전형적 방법을 게시하고, 다양한 혁신창업 주체가 정책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경감하도록 지원. 인터넷 플러스 혁신창업플랫폼 구축을 격려하고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적극 이용하 여 혁신창업활동을 지원하고 혁신창업주체의 소요 자본을 낮추고 기술매칭을 활성화 하는 등 인터넷 플러스 공공서비스를 촉진(발개위, 과기부, 공신부)

⑤ (혁신창업 중점브랜드를 창출) 각종 혁신창업 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전국대중창업만인혁신 활동주간을 개최. 인터넷 플러스 대학생 혁신창업 대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중국혁신창업대회, 메이커 중국 혁신창업 대회, 전국 농촌창업혁신프로젝트 창의성 대회, 중앙기업 혁신창의성대회, 중국청년혁신 창업대회, 중국 부녀자 혁신창업 대회 등 브랜드 대회활동을 적극 전개. 창업 경진대회 중 선정된 우수한 혁신창업프로젝트에 대해 후속지원을 강화(발개 위, 중국과학협회, 교육부, 과기부, 공신부, 인력자원부, 농업농촌부, 국가자원 위원회, 공청단, 전국부녀자연맹)

(6) 혁신창업 금융서비스 개선

① (혁신창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도시 시중은행의 위험식별 및 평가능력을 제고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시골 은행의 현지화, 민영화, 전문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민간자본이 농촌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증식 참여시 지원하고 농촌전자상거래 등 신업태에 대한 중점 발전을 지원. 중대형 시중은행의 보편금융사업부 설립을 촉진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은행에 한해 과학기술형 신용대출 전문경영 사업부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며, 혁신창업기업 서비스 능력을 제고. 인수합병 대출 업무를 지원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서비스 수준을 제고(은행보험감독위원회, 인민은행)

② (창업투자 지원 활용) 창업투자업종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전체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원칙에 따라 창업투자기금발전 촉진을 통한 세수정책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정책환경을 조성. 모태펀드의 시장화와 전문성을 제고.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유도기금, 국가 중소기업 발전기금 등 유도기금을 활용하여 초중기 혁신기업의 발전을 지원. 엔젤투자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엔젤투자발전을 위한 정책조치를 강구하도록 격려하고 엔젤투자 기반을 강화. 정부가 출자한 산업투자기금의 신용정보등기를 개선하고 산업투자기금의 성과와 공공신용종합평가를 실시(발개위, 증권감독위원회, 세무총국, 재정부, 공신부, 과기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위원회)

③ (혁신창업 직접투자 통로 확대) 발전전망은 좋으나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혁신형 기업의 상장 또는 신삼반, 지역 주식시장 등록을 지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과 창업투자기업의 채권발행을 통한 투자 지원. 인터넷 업종 주식 투자 및 소형기업과 혁신창업기업인에 대한 투자 통로 확대. 회사법 및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기업이 주식 1개에 대해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증권감독위원회, 발개위, 과기부, 인민은행, 재정부, 사법부)

④ (차별화된 금융지원정책 실시) 국가유자담보기금에 위탁하고 주식투자 및 채 담보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담보산업체제를 구축. 보험회사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지재권 투자를 위해 보증보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은행의 지급준비율 감소, 신용대출, 채용자 등 구조적 회폐정책 수단을 통해 자금이 혁신형 기업과 소형기업에 더 많이 흘러가도록 개선. 또한 과학기술성과 이전을 위한 투자위험 보상 시범사업을 연구. 전략신흥산업의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협력매커니즘을 실시하여 전략신흥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재정부, 은행보험위원회, 과기부, 지재권국, 인민은행, 공신부, 발개위, 증권감독위원회)

(7) 혁신창업 발전 입지 마련 가속화

①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과학기술혁신 입지 구축) 베이징, 상하이 과학기술혁신센터의 혁신기초 마련 및 과학기술기초설비 및 세계일류 학과의 집적화를 가속화. 홍콩, 마카오, 대만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제화된 혁신창업협력 매커니즘 구축을 탐색(지방정부)

② (혁신창업집적구 구축) 경제기술개발부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형 또는 과학기술형 등 특색있는 혁신창업원을 조성. 국가급신구를 통해 우주항공, 오락, 노인부양, 안전 등 산업과 도시융합발전을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장려. 조건을 갖춘 성시 정부가 종합형 국가산업혁신센터를 건축하고, 핵심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 또한 중심도시전략에 맞춰 지역간 협력을 통한 혁신플랫폼 구축을 모색(재정부, 공신부, 과기부, 발개위, 지방정부)

③ (상황 시범기지 유도를 통한 시범효과를 활용) 장강삼각주 시범기지연맹을 충분히 활용하고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서부지역 등 지역시범기지 연맹 구축을 촉진하여 다양한 기지간 원활한 발전을 촉진. 상황 시범기지에 우수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시범기지가 과학기술 성과를 이전하고 재정, 금융, 인재육성 등 방면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발개위, 생태환경부, 은행보험감독위원회, 과기부, 재정부, 공신부, 인력자원부, 유관지방정부, 시범기지)

④ (국제협력 강화) 중국과 동남아 실크로드 등 국제화플랫폼을 활용하여 일대일로 인접국과 혁신창업 협력을 전개. 정부간 다자간 협력매커니즘 구축을 촉진. 각종 국제협력포럼 등 중요한 수단을 통해 민간협력을 촉진. 또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혁신창업 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하여 국제협력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발개위, 과기부, 공신부, 유관 지방정부)

(8) 현장맞춤형 정책 실시

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혁신창업 정보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소통활동을 강화. 상황담당 기관간 연석회의 총괄기능을 발휘하여 부서간, 부서와 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 각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실수를 용납하고 면책하도록 장려. 과학기술, 금융, 재정, 세수, 인재 등 혁신창업 지원 조치가 잘 융합하도록 촉진. 상황발전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작업을 잘 수행(발개위, 통계국, 지방정부)

② (현장 모니터링 강화) 상황 시범기지에 대한 연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작업 수행. 혁신창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한에 맞춰 해결하도록 독촉(발개위, 중국과학협회, 지방정부)

③ (혁신창업 경험보급) 혁신창업 정책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정책홍보와 현장 안착 업무를 잘 수행. 각 지역에서 경험교류회와 현장견학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우수사례와 선진경험 보급을 강화. 혁신창업 정책과 경험 홍보를 강화하고, 우호적인 여론 형성(각 부서와 지방정부)

각 지역과 부서는 상술한 혁신주도형 전략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여, 생각과 인식과 행동을 당 중앙회와 국무원 정책결정부서와 같이 함으로써, 본 의견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구체적 정책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일정에 맞춰 임무를 완성하고 각 조치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혁신에 의한 취업능력과 과학기술혁신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가경제의 질적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중국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세계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5년 제조2025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 플러스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 제조업과 인터넷을 결합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중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6.5월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3개년 실시방안 수립을 시작으로 2017년 차세대 AI 발전규획(국무원), 차세대 AI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3개년 실행계획(공업정보화부) 발표 등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일부 분야의 경우 미국을 능가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논문은 37만여편으로 미국보다 많고, 인공지능 기업수도 중관춘을 중심으로 약 1,040개가 존재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21%를 차지하였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사례>

분야	업체명	설립연도	투자유치	특징
배송용 무인드론	원이	2015	Aplus	드론배송 루트개척
개인용 무인드론	다장창신	2006	상장	글로벌 시장 겨냥
저속 무인 자율주행차	즈싱저	2015	Bplus	청소/맞춤형 배송출시
가정용 로봇	강리요유란	2007	상장	틈새시장 겨냥
건강관리/의료진단	원즈성	2012	Cplus	음성인식 솔루션 개발

안전/보안	상탕커지	2014	C	안면인식 기술 고도화
안전/보안	귀자	2013	C	지문인식 기술 고도화
인공지능 공급관리	창신치쯔	2018	엔젤	재고관리/오류해결
가상의류 시착용	이마이커지	2013	상장	O2O유통 실현

출처 : 국제무역연구원,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 본 2018년 중국 AI시장 트렌드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인공지능이 이미 실생활에 활용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시안대학교 등 일부 대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출입 및 수업태도 등을 체크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 발표이후, 2018년부터 중국 교육부에서 학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것을 권장(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 산하 과학기술 싱크탱크인 중국과학원의 자동화연구소가 2018.7월 유치원단계부터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구글 등 세계적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공동 개발해 이미 교육현장에서 학습하고 있다.

(3) 지방정부의 창업정책

■ 2017년 창업정책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로 창업진흥정책에 부흥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한해동안 발표된 창업진흥 정책은 아래와 같다.

2017년 지방정부의 상창 정책

성	정책명
산 동	실업보험 지원에 참여하는 직원의 직무능력 제고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 청도시 영세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과 이자보조와 관련된 통지 귀향 창업자 지원 및 농촌의 1,2,3차산업 융합발전 촉진과 관련된 실시의견 덕주시의 창업유발 취업지원 자금관리에 관한 임시방법

	<p>지난시 중소 영세기업의 혁신권 실시 관리방법(시범)</p> <p>새로운 동향아래 창취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태시 인민정부 의견</p>
산시	<p>성 소재 기술형 우수 중소기업 육성 5년 행동계획</p> <p>산시성 중소 영세기업의 상황 기지 건설 관련 관리방법</p>
시장	<p>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우대정책 서비스와 관리지침</p> <p>라사시의 영세기업 상황 기지도시 시범건설 본격추진과 관련된 약간의 정책조치</p> <p>라사시 영세기업 상황 기지도시 시범건설과 관련된 약간의 정책조치</p>
저장	<p>기술형 우수 중소기업을 통한 상황 촉진 방향</p> <p>중소 영세기업의 전문성 제고 발전에 관한 실시의견</p> <p>중소 영세기업 단지 건설과 관련된 경제 구조개선 의견</p> <p>중소 영세기업단지 건설 관리 강화와 관련된 통지</p> <p>응용혁신권 보급 및 상황 촉진과 관련된 약간의 의견</p> <p>서비스권, 활동권, 혁신권의 무료 발송</p>
닝샤	과학기술 금융생태계 조성
광시	클라우드 플랫폼 건설,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지원
허베이	<p>중소기업 상황 정책 강연활동 전개</p> <p>허베이성 영세 및 소기업 상황 기지발전 실시계획</p> <p>과학기술형 중소기업육성 강화 방안</p> <p>허베이성 기술형 우수기업 강화를 위한 실시방안</p> <p>허베이성 대학교 졸업생 창취업 촉진 기금 관리에 관한 임시방법</p>
간수	<p>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개소</p> <p>간수성 창업담보대출 실시방법(시범)</p> <p>란주시 과학기술형 우수기업(소거인) 육성 3개년 행동방안</p>
광둥	선전시 중소 영세기업 상황기지 도시의 시범 전용자금과 지식재산권 운영규칙(임시)

출처 : 중국 중소기업정보망 자료 정리

■ 지방정부의 창업정책 사례

특히 해남성 정부는 2016년부터 매년 인터넷 플러스 상창주간에 엔젤투자 로드쇼를 개최하여 지방 인터넷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 조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에는 총 2회의 엔젤투자 로드쇼를 개최하여 20여개 기업을 선정해 현장에서 간소화된 심사방식을 통해 즉시 100만 위안(약 1.7억원 상당)에 달하는 엔젤투자 자금을 제공하였다.

해남성 공업정보화청은 지방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의 재정자금에서 인터넷산업에만 투자하는 5천만 위안(약 84억원 상당)에 달하는 전문엔젤투자자금을 할당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업력 5년 미만에 직원 200명 미만의 초창기 인터넷 기업으로 연 매출액 2천 위안 미만의 기업 중에 선발하며, 업체당 투자누계 금액이 1,000만 위안(약 17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7. 기타

(1) 규제완화

중국 정부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정부권한 민간 이양을 통한 대민 서비스 개선과 시장 활력 증진을 위해 행정제도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13년 시진핑 신정부 출범이후부터 주로 에너지, 교통, 도시 인프라 등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심사허가권을 취소하거나 지방정부로 이관하였다.

2017년에는 공상국의 영업허가증, 조직 및 기구 등록증, 세무 등기증 등 3가지 증명을 하나로 통합한 ‘다증합일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증치세율을 제조업 등에서는 기존 16%에서 13%로, 건설업 등에서는 10%에서 9%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엔젤투자자가 하이테크 업종의 시드단계 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2018년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창업 소요시간 및 절차 간소화와 기업 부담 경감을 통해 중국의 창업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평가되어,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행정제도 개혁 및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빅데이터를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

중국 정부는 2020년 빅데이터 분야 세계 중심이 된다는 목표로, 공업 정보화를 중심으로 2016-2020년 빅데이터 산업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빅데이터의 도시 구이저우에 2014년 국가급 종합시범구를 조성하였고, 2015년 빅데이터산업박람회를 최초로 개최하고, 2017년에는 빅데이터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현대기아차는 구이저우에 글로벌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커넥티드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국제 빅데이터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59개국에서 448개 업체 등 약 9만명이 참가하였다.

중국정부의 체계적인 빅데이터 산업 육성책에 힘입어,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빅데이터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교통운수, 여행 등 전산업분야에 빅데이터 응용을 전면 촉진하고 있다.

(3) 자유무역시범구 조성발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중국 정부는 무역투자 자유화, 서비스업 개방, 정부 제도 개혁 등을 통한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해 무역투자 혜택 등을 부여하는 자유무역시범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하여 2019년 현재까지 중국 전역에 12개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운영중이다. 가장 최초 지정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는 2019년 3월 기준, 2,800여개의 기업이

전기차, 의료 등 38개 신산업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18.12월에는 상하이내 최대 규모인 테슬라 프리미엄 공장이 시공허가를 받아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자유무역시범구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통한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신산업, 신업태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시범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2017년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전면 시행되었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란 외국인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명시된 업종,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는 의미로,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대외 개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년 투자 금지 및 제한리스트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63개, 2018년에는 48개, 2019년에는 40개의 외투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용해나가고 있다. 기존에 외국인이 투자가 제한되었던 신에너지, 은행, 보험업 등을 전면 개방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앞으로도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2018.12.25.일부터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 금융, 광업 등의 시장보호가 필요한 151개 리스트를 제외하고 어느 시장이든 시장진입이 전국단위에서 허용된다. 즉 지방정부에서는 시장진입을 제한할 권한이 없게 된 것이다.

2016년부터 상해, 광둥, 텐진, 푸젠 등 4개 지역에서만 시장진입네거티브 리스트를 시범 적용해 오던 것을 2018년말부터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중국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적권 보호 및 활용, 관리 강화

중국은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적권 침해건수가 많아 국내외적으로 지적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갈등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은 기술탈취국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최근 중국정부는 예전과 다른 지적권 보호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적권 관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정부의 지적권 보호 움직임은 최근의 미중 무역갈등보다 10년 이전인 2008년 중국 국무원이 2020년까지 지적권에 대한 법률 완비, 지적권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목표를 제시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2014년 연이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중급 수준의 지적권 전문법원이 개설되어 외국기업과의 지적권 분쟁을 심리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2017년, 중국의 지적권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 2019.1.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지적권 법원이 설립되어 전문지식을 요하는 특허소송 판결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적권 침해시 침해금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0.1월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에서는 외투기업에게 행정수단을 통해 기술양도를 강요할 수 없다는 조항이 도입되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제도 개혁이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적권 침해소송에서 외국기업이 승소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중국정부의 지적권 보호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다.

쿵푸 팬더라는 상표권을 둘러싸고 미국의 드림웍스사와 중국의 상하이

웨이푸사가 벌인 소송에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2018년 1월, 드림웍스사의 손을 들어줬으며, 중국 무선 진공청소기 외관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영국 전자제품 다이슨사와 중국 샤오저우사간 소송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특허재심위원회는 2019.2월, 다이슨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지적권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세계지재권 기구 WIPO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출원한 블록체인 특허수가 790건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2월 기준으로 5G 특허는 화웨이가 1,529건으로 1위를 기록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2019.6월, 지적권 강국 건설을 위해 중소기업 지적권 보호 추진사업, 해외 지적권 분쟁 대응 지도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지적권 보호, 관리 및 활용이 더 강화되어 외국기업의 중국내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중국에는 중창공간, 과학기술 중소기업 인큐베이터, 대기업이 설립한 인큐베이터, 중소기업 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기구가 존재한다. 이들 중소기업 지원기구는 혁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자원을 결합하여 전방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의 창업 열풍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중창공간

2017년 기준, 중국에는 5,739개에 달하는 중창공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2016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다. 중창공간은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 전과정에서 자금, 인력, 기술, 장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개방형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창업의 편리성과 성과를 제공하는 게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중창공간 설립이 본격적으

로 추진되었는데, 중국 정부는 매년 중창공간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2015.3월 중창공간 발전을 통한 대중혁신창업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통해 중창공간 개념이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2016년부터 텐진 시 등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중창공간의 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체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17.10월에는 국가급 중창공간 임시관리방법을 통해 과기부는 중창공간에 대한 규범화와 표준을 제정하였다.

또한 2018.2월 광둥성 과학기술청과 재정청은 과학기술기업 인튜베이터, 중창공간 보조금 실행방법(수정)을 통해 중창공간에 대한 보조금을 20만 위안(약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중국 지역별로는 광둥성에 235개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산둥성 203개, 강소성 170개, 북경 168개, 저장성 120개, 허베이 84개, 상해 82개, 천진 81개, 산시 73개, 요령 69개, 사천 64개, 후베이 62개, 복건 52개, 내몽고 47개, 허난 47개, 충칭 44개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중창공간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창공간은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2017년 한해동안 중창공간을 통한 지원기업수가 전년대비 52% 증가한 41만개에 달하고, 신규 등록기업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8.7만개, 창업 관련 행사 개최 및 교육훈련 건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5만건, 취업인원은 170만명에 달한다. 또한 중창공간을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이 1.8만개사, 투자유치금액이 670억 위안을 기록하였다.¹⁾

중창공간을 설립하는 주체는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하다는 점,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신흥분야를 육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그 특징 중 하나이다.

우선 대기업이 설립한 중창공간으로 텐센트 중창공간은 인터넷, 혁신

기술, 문화산업 등 분야를 핵심영역으로 선정하여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17년 중국 저장성에서 개최된 세계인터넷 대회에서 텐센트 마화팅 회장은 미국 등 해외에 중창공간을 설립하여 국내외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이 설립한 중창공간으로는 베이징대학 창업인큐베이터를 들 수 있는데, 120억 위안에 달하는 창업 클라우드 펀딩을 설립하고 400여개 투자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소가 설립한 중창공간으로는 베이징시 화학공업연구소가 있는데, 베이징 중관촌 지역에 신소재산업에 특화된 미래지성이라는 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창공간은 졸업기업이 크게 성공하여 다시 중창공간을 설립하여 후배기업인을 양성함에 따라, 중국의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우크공장이다. 요우크 공장은 중국의 대기업 완다그룹의 전 임원이 자신의 창업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자 퇴사하여 2015.4월에 설립한 기업으로, 설립 2년만에 전세계 6개국 30여개 도시에 100여개의 중창공간을 설립하여 4,000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공유오피스 분야에서 기업가치가 70억 위안(약 1조원)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이다. 창업자가 대기업에 일하면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입주기업의 문제점을 해소해주고 있다.

■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중국 정부는 1988년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빛불계획에 따라 1987년 우한에 우한동후창업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과학기술기업을 본격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말 중국 전역에 4,069개에 달하는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가 있으며, 이중 국가급 인큐베이터는 988개에 달한다. 과학기술 인큐베이

터는 신흥산업 발전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2017년말 기준으로 50%이상의 과학기술 인큐베이터가 전자정보산업에 종사하고, 15%가 첨단 제조, 8%가 바이오 의료, 의료기기, 8%는 문화오락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17년 한해동안 지적재산권 신청건수가 19만건, 지재권 등록건수가 9.5만건, 이중 발명특허가 2.1만건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국 발명특허건수의 5%를 차지하는 성과였다. 그리고 9,571개 기업이 479.7억 위안에 달하는 벤처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하고 창업관련 행사와 교육 훈련을 10.4만회 개최하였으며, 4.5만명에 달하는 창업멘토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인큐베이터의 국제화를 추진하고자 현재 24개국에 해외 인큐베이터를 두고 있으며, 2016년에 설치된 중-오스트레일리아 햇불혁신원 등 74개국에 과학기술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7년말 기준, 중국 전역에는 국가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플랫폼이 473개가 존재하며,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 인력 등 다양한 분야 애로에 대해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지원기구를 통합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창업기업의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후난성 중소기업공공서비스 플랫폼은 혁신창업 관련 6,000여개의 지원기구의 자원을 결집하여 109개에 달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후난성 소재 21개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300여개에 달하는 지원기구의 자원을 결합한 청쯔시 중소기업 서비스센터는 2002년 청쯔시가 중소기업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현재 중소기업정책 대강당 개최 등 온오프라인을 결합하여 정책정보 제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다양한 창업행사 개최

중국 정부는 창업 분위기 고조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 행사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창업관련 행사는 대규모로 다양한 계층별로 개최되고 있으며, 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흐름에 맞는 행사가 국제성과 성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창업행사는 2015년부터 매년 9월경 개최해 오고 있는 전국 대중창업만인혁신 활동주간을 들 수 있다. 2017년부터 본 행사는 해외주간으로 확대되어 개최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 플러스 대학생 혁신창업대회와 메이커 중국 혁신창업대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인터넷 플러스 대학생 혁신창업대회는 교육부, 발개위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2017년 행사에는 2,241개의 대학교와 37만개의 프로젝트, 150만명의 학생이 대규모로 참가하였다. 2017년 메이커 중국 혁신창업대회는 12개 지역에서 5,275개의 프로젝트가 참여하여, 창업 교류전시 및 인큐베이터의 장으로 역할하였다.

창업관련 행사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7.9월에 중국 부녀자연맹은 항주시에서 제1회 중국 부녀자창업혁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동 행사에는 60만명의 부녀자, 1,242개 프로젝트가 참여하여 결승전에 진출한 30개 프로젝트에 12.5억 위안의 투자의향이 추진되었다.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농촌창업혁신프로젝트창의대회는 2016년부터 농업부의 주최로 개최되었는데, 동 대회 수상 농민은 자금, 기술,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관련 행사는 국제적 규모로 확대되어 열기를 더하고 있다. 중국

심천혁신창업대회국제대회는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데, 2017년 행사에는 34개의 창업투자기관이 209억 위안의 기금을 조성하여 동 대회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또한 전국창업취업서비스 전시교류활동 행사는 2017년부터 인력사회부와 산동성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기 시작하였는데, 동 행사에는 9만명의 인원, 170개의 우수 프로젝트가 참가하여 창업교육훈련, 창업서비스 방면 등에서 창업성과 전시, 좌담회, 연구성과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7) 귀향 농민공에 대한 창업 지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국 14억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농민공(2018년말 기준, 약 2억8천만명, 국가통계국)의 귀향 행렬이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농민공의 취업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귀향 농민공에 대한 창업지원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먼저 2008년, 충칭시는 농촌산업화발전기금에서 3년간 200억 위안을 사용하여 귀향 농민공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하였다. 귀향 농민공에 대한 창업지원은 2015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 국무원은 농업 농촌자원의 개발과 귀향민 창업지원 행동계획에 관한 실시에서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귀향창업원 설치, 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 귀향창업교육 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귀향창업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5.11~12월의 1단계는 지역별로 구체적인 귀향창업 실시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2016.1~2018.12월의 2단계는 지역별 조직을 설치하여 귀향창업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2019.1~2020.12월의 3단계는 그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외에도 귀향농민공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소액담보대출 지원, 이자 비용 보조 및 소득세, 실업보험료 등 비용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IV.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1.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강화

우리나라의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창업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창업 도전 문호 조성 및 본 글로벌 벤처 육성을 위해 2013년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글로벌 창업기업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 글로벌 창업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글로벌 창업기업 지원사업 시행, 글로벌 창업컨퍼런스 개최 등의 사업을 시행해왔다. 글로벌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2017년말 기준, 동남아, 유럽 등 11개국에 진출한 총 363개 창업 팀을 지원하여, 1,039.8억원 매출액과 1,181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294.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이 여전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여부와 관련한 문항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이 가운데, 수출에 종사한다는 비중이 1.3%에 불과했다. 정부가 글로벌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8년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업이 제한되어 있어 정책목표에는 한참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글로벌 창업기업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언론 홍보 및 대형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글로벌 창업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창업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외의 우수 민간엑셀러레이터와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창업기업이 보육과정에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아 현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017년말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

아 창립한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는 2019.9월 중국 하얼빈시와 협력하여 국제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중국 및 러시아 등 동북아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협회가 태동한지 3년이 채 안되어 해외기관과 협력관계가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나, 이러한 해외엑셀러레이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우수한 외국인재의 기술창업 활성화

국내의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 창업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재 유치를 강화하여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이러한 취지로 외국인 창업비자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중소기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외국인 기술창업지원’은 총 108개 기업을 지원하여 94개 국내기업 창업, 62.5억원 투자유치, 49.8억원 매출, 100명 신규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동 사업에 참여한 일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창업비자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창업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창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취득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을 허용하고, 학사이상의 학력 요건도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 인재로 인정하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출입국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창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수도 외국인 창업 전문보육공간인 서울글로벌창업세터를 2016년부터 운영하여 2019년까지 4기의 입주기업 약 100여개사를 졸업시키고 창업에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입주기

업에게 1년간 무료로 입주를 허용하고 무역아카데미 교육, 분야별 컨설팅, 지적권 취득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창업지원사업은 취지는 좋으나 사업규모가 작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의 귀국 유학생 전용 창업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규모의 경제 및 집적 효과를 통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의 입주센터의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창업정책의 우수모델로 해외에 정책수출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이와 함께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6년부터 운영중인 K-스타트업 글로벌 챌린지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창업비자 제도 및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동 행사는 전세계 우수 창업팀을 모집 선발하여 1억원의 상금,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 보육, 투자 등 원스톱 지원을 제공해 외국의 우수한 기술창업자가 국내에 정착하여 창업활동을 해나가도록 돕고 있다.

행사규모를 볼 때 2019년 한해동안 전세계 95개국에서 1,677개의 창업팀이 지원하여 현지 오디션을 통해 20개국 39개팀이 본선에 참여하였는데, 종사 업종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로 이루어져 있어 동 행사가 잘 정착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를 선진화해나가는 데 좋은 밑거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6-2018년 3년간 성과를 보면, 전세계 162개팀을 선정하였고 이중 74개팀이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779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256억원의 매출, 15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현재 4년차에 불과한 행사인만큼 세계적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우수한 기술창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규모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3.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정부는 청소년의 혁신적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제라도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잘된 일이지만, 당초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시행하려던 기업가정신 교육이 막판에 빠지게 되어 향후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행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이 도입되었어도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무엇을 가르치냐가 중요한데, 교과과정 보완도 교육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포인트이다. 막연히 기업가정신 교육이 도입되었다고 청소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창업이 늘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은 키울 수 있겠지만, 현재의 반기업 정서와 대기업 선호 분위기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창업 실행과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으로 확대되고 교과과정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을 통해 실제 창업 실행 및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교원 양성이다. 교원 양성을 위해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대상은 비즈쿨 교사, 사회과 과목 교사, 창업대학원 교수 등이다. 교원 양성 사업도 이제 5년차에 접어들었으니, 그동안 교사들 사이에 축적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성공 및 실패사례를 전파하는 교원간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창공간 운영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협력과 교사들간 경험 공유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향후 우리

나라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교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 활성화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혁신창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다.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전국 14개 주요 대학의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취업 결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조인자는 부모님(31%)으로 나타났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부모님 슬하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창업에 성공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부모님 세대부터 혁신창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혁신창업과 교육의 역할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 캠페인 및 대국민 인식전환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모 세대부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상을 인식하고 어려서부터 창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4.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강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8년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 양성계획(19-23년)을 발표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19년 인공지능 대학원 3곳(카이스트,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을 선정하여 각 10억원씩을 지원하였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것은 잘된 방향이나, 현장에서는 지원금 부족과 인공지능을 가르칠 전문 교수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구글, IBM 등 세계적 기업의 영입 제안으로 기존의 우수한 인재마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IT 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AI 대응은 중국보다 늦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일류대학 칭화대는 2017.12월 AI 연구원을 개소하였고, 뒤이어 베이징대학교가 2018.6월 개원하였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는 중국보다 1년 6개월 늦게 2019.5월, AI 벨리 조성계획을 밝히고, 국내 최초로 AI연구원을 개소하였다. 늦게나마 AI연구원을 개소한 것은 다행이지만, AI를 가르칠 저명한 교수를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지원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우선적으로 저명한 AI 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디지털 투데이(2019.8.14.)의 ‘AI 인재, 지금은 부족하고 나중엔 뺏긴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2019.7월, 카이스트와 산학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카이스트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연구비 지원, 학회 및 인턴십 참여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IBM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최초의 P-tech 학교인 ‘서울 뉴칼라 스쿨’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유급 인턴십 제공, 커리어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IT기업과 인재쟁탈전을 우리나라 안방에서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는 현재 인공지능 등 차세대 신기술 인재쟁탈전을 벌이고 있고 어느 국가가 더 많은 인재를 영입하느냐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가 좌우된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아직 시작단계로, 앞으로 정부의 선도인재 양성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립된 과제의 진행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부분은 즉시 실행해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인재양성계획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수한 국내외 인재를 유입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금과 함께 각종 파격적인 혜택 못지 않게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I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하지 않게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재 투자를 강화해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 양성계획(18.12월)>

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강국

추진도표

- ◇ 역동적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선도인재 1만명 양성('19~'23년)

추진전략

- 1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 설립
- 2 시장수요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인재양성
- 3 민관 협력체계 확대 및 해외 네트워크 강화

세부과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2,500명  ~2023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2,250명 →   ~2023	AI 대학원 지원 AI 대학원 → 860명  ~2023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Cloud, AI, Big Data → 7,000명  ~2023
-------------	--	--	---	---

5. 신산업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이나 규제되지 않는 산업 모두를 풀어주는 방식 등 전향적인 규제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다. 중국이 그간 제조대국에서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배경에는 신기술에 대해 선허용 후규제로 일관했기 때문인데, 이는 중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된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차량공유 서비스인 디디추싱에서도 알 수 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결제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에 출시된 서비스로, 2011년에 들어서야 '결제 업무 허가증(支付業務許可証)'이라는 결제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자, 중국 인민은행에서 2015.12월부터 모든 비결제 은행기관에서 회원 등록시 실명거래를 하게 하였고, 2018.4월부터는 일정금액 이상 결제의 경우 추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를 시행하였다.

디디추싱의 전신은 베이징샤오취기술회사로 애플 iOS 기반의 택시 호출 서비스를 2012년에 출시한 후 급성장하여 2014년 유니콘기업으로 등극하였다. 2016년 중국 정부는 '인터넷예약 택시 경영서비스 권리 잠정법'을 발표하며,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정부의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사후규제를 시행하였다.¹⁹⁾

중국 정부의 선허용 후규제 방식은 모바일 결제와 차량공유 등 혁신서비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였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2017.10월 기준 1경3천조원 규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차량공유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27조원 규모에 달해 2위인 미국의 13조원과 비교하여 2배이상 큰 세계최대의 시장으로 도약하였다.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 2017.12월



중국의 규제 혁신 사례가 보여주듯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일단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만족하지 않고 신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신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6. 제도전 문화 조성 및 재창업 지원 강화

정부는 그간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국과 같은 창업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전 문화 조성 및 재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1997년 벤처특별법 제정이후 창업하여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05년 벤처기업 패자부활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해왔다. 2010년에는 재창업자금지원사업, 2011년에는 실패기업의 심리적 치유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재기개발원 개소, 2014년에는 재창업 기업을 교육, 자금에서부터 원스톱으로 종합지원하기 위한 재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재창업지원센터가 전국망 체계를 갖추어 2019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18개가 설립되어 재창업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간 실패에 두려움 해소 및 재창업 지원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말에 7전 8기 재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동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대국민 재도전 캠페인인 실패박람회를 중소기업 지원의 컨트롤 타워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에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가 합동으로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동 박람회는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어 문화, 토크 등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현재까지 아직 3회의 행사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만연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재도전 문화를 형성하는데 좋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신기술 창업후 실패사례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대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처 칸막이를 깨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하는 만큼 지역별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간다면 우리나라에도 실패라는 경험이 사회적 자산화되어 혁신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국제무역연구원,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 본 2018년 중국 AI시장 트렌드
코트라, 중국의 지역별 창업생태계 현황과 시사점, 2018
- 정유신, 중국이 이긴다, 지식노마드, 2018, 251
- 이고봉, 우리나라 대학교 학술창업정책의 변천과정과 문제 및 대책, 2017.5
- 산업연구원,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산업의 대응전략, 2017.9
-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2018년 대학창업 통계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2019.5월
- 창업진흥원, 2018년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보고서, 2019.1월
- SBA, 2018년 서울시 창업생태계 조사보고서
- 국제무역연구원, 한중 대학생 창업생태계 비교, 2019.6월
- 무역협회, 한미중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비교, 2019.5월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실태조사」,
2017.10.27.
- 한국은행, 중국의 창업활성화 배경과 시사점, 2018.1월
- 한국은행, 중국 소비시장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2018.11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차산업혁명시대 기업가정신의 의의와 방향, 2017.9
포스코경영연구원,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업, 2015.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부 창업(재도전) 벤처지원사업 참여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2017.12

현대경제연구원, 20대 청년창업의 과제와 시사점, 2017.4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한중창업정책 비교연구, 2016.9

한국무역협회, 최근 중국내 창업신드롬과 시사점, 2015.7월

<외국문헌>

세계경제포럼, 2018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스타트업 계놈, 2019 Global Startup Ecosystem

OECD, “small, medium, strong. trends in SME performance and business
conditions” , 2017.5월

인민출판사, 2017년 중국 대중창업만중혁신발전보고, 2018.12

북경대학교 출판사, 중국 중소기업 발전보고 2018, 2018, 349

칭화대학교, 2018-2019년 중국 CVC 산업분석보고, 2019, 78

진베이저자/조재구편저, 중국제조2025, MCN미디어, 2017, 311

우애핑 동명이화, 인터넷플러스와 대중창업만중창신 정책구조분석, 과
학기술관리연구, 2018 no.10

런레이, 오가희 공저, 제4차창업열풍, 2016.7월, 중신출판사

